

슬라브어 담화 직시와 대응

정 정 원
(연세대학교)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슬라브어, 특히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불가리아어 담화 직시의 전반적 특징을 살펴본다. 슬라브어에서는 무엇보다도 근칭지시사가 담화 직시사로 기능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개별 슬라브어에서 담화 직시사의 구체적 사용 양상은 상이하다.

폴란드어와 체코어에서는 원칭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가 담화 직시사로 거의 기능하지 못하는 반면, 러시아어는 원칭지시대명사가 담화 직시사로 활발하게 사용되며, 인칭대명사도 사용 가능하다. 불가리아어에서는 원칭지시대명사가 담화 직시사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반면, 인칭대명사는 자주 사용된다.

이와 같이 슬라브어 담화 직시사는 개별 언어에서 상이하게 직시와 대응 기능을 수행하는데, 근칭, 원칭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가 모두 담화 직시사로 기능하는 러시아어에서는 그것의 직시성이 다른 언어에 비해 두드러지며, 가장 분석적인 슬라브어인 불가리아어에서는 인칭대명사의 사용이 잦아 다른 슬라브어에 비해 담화 직시사의 대응 기능이 두드러진다.

주제어 : 슬라브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불가리아어, 담화 직시, 직시, 대응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1600).

1. 서론

담화 직시(discourse deixis)는 그 발화 자신을 포함하는 담화의 일정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용어 자체에서 드러나듯 단순히 직시의 하위범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직시(deixis)뿐 아니라 대용(anaphora)의 특징 또한 드러내며 직시와 대용 사이의 중간자적 입지를 차지한다 할 수 있다. 즉, 담화 직시사는 무언가를 “가리킨다(pointing)”는 점에서 직시적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보통의 직시사처럼 외부조응적 지시(exophoric reference), 즉,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담화 내 선행 및 후행 담화를 지시하며 내부조응적 지시(endophoric reference) 기능을 담당하므로 대용의 특징을 강하게 드러낸다.

자연어에서 발견되는 텍스트 내 담화 직시의 대부분은 소위 “비순수 텍스트 직시 (impure textual deixis)”인데, 이것의 경계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 용어를 처음 도입한 라이언즈(Lyons 1977:667-668)도 지적한 바 있다. 즉, “순수 텍스트 직시(pure textual deixis)”인 (1)의 밑줄 친 대명사가 담화의 일정 부분 자체의 형식적 측면만을 직접 가리키며 무엇보다도 직시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비순수 텍스트 직시”인 (2)의 지시대명사는 선행하는 담화나 단어의 형식보다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을 가리키기 때문에, 즉, “손가락 끝”이 향하는 대상(referent)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referential meaning)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직시 혹은 “순수 텍스트 직시”라 할 수 없고, “비순수 텍스트 직시”로 직시와 대용의 경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Lyons 1977:667-668, Levinson 1983:87).

(1) A: That's a rhinoceros. (Lyons 1977:667-668, Levinson 1983:87)

B: What? Spell it for me.

(2) A: I've never seen him. (Lyons 1977:668, Levinson 1983:87)

B: That's a lie.

담화 직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직시와 대용의 사이의 경계적 특징 때문에, 담화 직시가 개별 언어에서 구현되는 구체적 방식에서 차이가 나며,

언어에 따라 그것의 직시성과 대응성도 상이하게 드러난다.

본고에서는 대표적 담화 직시인 소위 “비순수 텍스트 직시”에서 슬라브어, 특히 연구자가 구사 가능한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불가리아어¹⁾에서 근칭, 원칭 및 원근중립적 지시사²⁾와 인칭대명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개별적 슬라브어 담화 직시사가 어떻게 직시성과 대응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여러 슬라브어의 담화 직시에서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 비교가 차이점과 공통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바, 무엇보다도 동일 내용을 담은 여러 슬라브어 텍스트를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삼겠으며, 그것은 주로 체홉의 “지루한 이야기”의 러시아어 원본과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번역본,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러시아어 원본과 폴란드어, 체코어, 불가리아어 번역본이 될 것이다.

II. 슬라브어 근칭 및 원칭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

많은 언어에서 담화 직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근원칭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이며, 그 중에서도 지시대명사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영어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Webber 1988:115, Webber 1991:125)에서 선행사가 NP인 경우 공지시사로 *it*가 95%, *that*과 *this*가 5% 사용된 것과 정반대로, 선행사가 담화인 경우 담화 직시사로 인칭대명사 *it*가 18%, 지시대명사 *that*나 *this*가 82%라고 밝히고 있는데, 슬라브어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연구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그것의 전반적인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슬라브어에서도

- 1) 본고에서는 여러 여건상 모든 슬라브어를 상세하게 고찰할 수는 없지만, 동슬라브어인 러시아어, 서슬라브어인 체코어, 폴란드어, 남슬라브어인 불가리아어는 모든 슬라브어 계통을 포함하고 있어, 이 네 언어만으로도 어느 정도 슬라브어의 전반적 특징을 가늠해볼 수 있다.
- 2) 본고에서 “지시사(demonstrative)”는 명사를 한정하는 지시형용사(demonstrative adjective)와 대상 자체를 지시하는 지시대명사(demonstrative pronoun)을 통칭하며, 지시형용사와 지시대명사가 모두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문법적 역할은 상이하므로 필요한 경우 담화 직시 기능을 담당하는 지시사는 ‘지시대명사’로 따로 명명하겠다.

담화 직시는 무엇보다 지시대명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첫째, 지시사(demonstrative)의 일차적 기능이 “가리키기”로, 3인칭 직시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 수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슬라브어는 물론이고 언어 보편적으로 일차적인 외부조응적 직시뿐 아니라 전이적인 담화 직시에서도 근칭 및 원칭 지시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둘째, 슬라브어에서는 전반적으로 인칭대명사의 사용이 미약하여, 담화 직시에서도 역시 인칭대명사에 비해 지시대명사의 사용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pro-탈락이 두드러지는 남서슬라브어에서 특별한 화용적 이유가 없다면, 주격 인칭대명사는 문장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물론 언어마다 차이가 나서, 보다 분석어(analytic language)적 특징이 강한 불가리아어와 체코어에서는 비교적 그 정도가 덜 하긴 하지만, 대체로 슬라브어에서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른 유럽어에 비해 사격 인칭대명사의 생략도 잦은 편이다. 이러한 슬라브어 주격, 사격 인칭대명사의 생략 및 탈락은 그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문체적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무표적인 것으로 간주되기까지 한다(정정원 2012, 2013a, 2015a). 이에 반해 슬라브어 지시대명사는 주어의 인칭, 성, 수와 같은 잉여적 문법정보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상과 담화를 “가리키는” 기능까지 보유하여, 명시적 형태가 무표적이며, 생략이 가능하긴 하나 그것의 복원이 특별한 화용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여러 언어에서 가장 흔한 지시사 체계는 원칭, 근칭 그리고 중립적 혹은 중간적 지시사의 삼원체계, 또는 원칭과 근칭의 이원체계를 이루며, 이 때 담화 직시 기능은 영어처럼 주로 원칭지시사(that)가 담당할 수도, 한국어(‘그것’), 일본어(‘それ’)처럼 중간적인 제3의 지시사가 담당할 수도 있는데, 러시아어(это), 폴란드어(ten), 체코어(ten), 불가리아어 (този) 등 슬라브어에서는 주로 근칭지시사³⁾가 담당한다.

3) 이 중 체코어 ten은 현대 체코어에서는 직시 중립적 성격이 강하지만, 원래 근칭지시사였다. 사전의 의미기술을 통해 볼 때, 고대 체코어 ten은 (a)과 같이 무엇보다도 근칭이었다면, 현대 체코어에서는 (b)에서 보듯 근칭과 원칭이 중화되고 있다. (a) ukazuje na osobu či věc, která je v dohledu mluvčího i posluchače(화자나 청자의 시야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킨다) (Vokabulář webový, webové

현대 슬라브어의 근원칭 지시사 및 3인칭대명사는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다음 표에서도 드러나듯, 그것은 아마 여러 현대슬라브어 지시사에 고대슬라브어 지시사의 형태소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⁴⁾

	중립	화자에 가까움 [근칭]	화자에게 멈 [원칭]		3인칭
			청자에게 멈	청자에 가까움	
고대슬라브어		сь	онь	ть	
러시아어	(этот, тот)	этот (,сей)	тот		он
우크라이나어	(цей, той)	цей	той		він
벨라루스어	(гэты, той)	гэты	той		ён
폴란드어	(ten)	ten	tamten (,ów)		on
체코어	ten	tento, tenhle	tamten, onen		on
슬로바키아어	ten	tento	tamten, henten		on
불가리아어	(този)	този (,тоя)	онзи (,оня)		той
마케도니아어	(тој, оној)	овој	оној	тој	тој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taj, onaj)	ovaj	onaj	taj	on
슬로베니아어	(tā, tīsti)	tā	tīsti, ôni ⁵⁾		òn

hnízdo pramenů k poznání historické češtiny 2006-2016)

(b)ve spojení s bližším určením ukazuje n. odkazuje s významem identifikujícím n. rozlišujícím; je-li bližším určením vedlejší věta, slouží ten jako odkazovací (souvztažný) výraz k ní; oslabeně ukazuje na přítomnou blízkou n. vzdálenější osobu n. věc; tento. (더 가까운 대상과 관련하여 동일시하거나 변별하는 의미를 가지고 가리킨다; 옆문장이 더 가까운 대상이라면 ten은 그것을 지시하는 표현으로 기능한다; 가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약하게 지시한다.) (Slovník spisovného jazyka českého 2011)

- 4) 주어진 표는 정정원(2015b:167)와 매우 유사한데, 중립적 사용과 이형을 추가하였고,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의 경우 현대어에서 ten의 의미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마케도니아어는 원칭을 세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 5) 슬로베니아어 원칭 tīsti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을, ôni는 tīsti보다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을 지칭하여(Herrity 2000:100), 지시사가 셋이어도, 고대슬라브어의 삼원적 지시사와는 상이하다.

(a) Téga človeka poznám osébnó, tístega po vídezu, ónega pa splòh nè. (이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저 사람은 얼굴만 알고, 저기 멀리 있는 저 사람은

고대슬라브어(старославянский язык)의 지시사는 삼원체계여서 화자와 가까운 대상을 가리키는 *сь*, 청자와 가까운 대상을 가리키는 *тъ*, 청화자로부터 먼 대상을 가리키는 *онь*이 있었다(Мейе 1951:353, 정정원 2015b:165-166)⁶⁾⁷⁾.

고대슬라브어에서 화자에 가까운 대상을 가리켰던 *сь*는 우크라이나어에서 구개음화되어 근칭지시사 *цей*가 되었을 뿐, 현대슬라브어 지시사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러시아어 *в сию минуту*(이 순간), *сегодня*(오늘), *сейчас*(지금), *ни то ни сѣ*(이도 저도 아닌) 등에 남아 있고, 현대 폴란드어 *dziś*(오늘), 체코어 *dnes, dneska*(오늘) 등에 어간 *-s-*가 흔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Stieber 1979/2005:150, 정정원 2015b:166).

청화자 모두로부터 먼 대상을 가리켰던 지시사 *онь*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슬라브어에서 3인칭대명사로 발전했다. 현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세르비아어/크로아티아어, 슬로베니아어 원칭지시사 *онзи, оној, онај, оџи*, 체코어 원칭지시사 이형 *onen*에 고대슬라브어 원칭 *он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중 세르비아어/크로아티아어, 슬로베니아어의 원칭지시사와 3인칭대명사는 어간 *on-*을 공유하고, 체코어 원칭지시사 *onen*의 여성형 *ona*, 중성형 *ono*는 3인칭대명사와 형태가 동일하여(정정원 2016:166), 슬라브어 원칭지시사와 3인칭대명사의 형태적, 의미적 연관성을 드러낸다.

고대슬라브어에서 청자와 가까운 대상을 가리켰던 *тъ*는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했다. 즉, 동슬라브어와 세르비아어/크로아티아어에서는 그대로 원칭 *тот, той, той, taj*로 남았지만, 서슬라브어에서는 *тъ*에 접미사 *-пъ*이 결합하여 생성된 새로운 지시대명사 *ten*이 근칭으로 전환되었다. 불가리아어에서는 *тъ*에 인칭대명사 *јъ*가 결합한 *тъјъ*가 3인칭대명사 *той*가 되었고, 직시성

전혀 모른다)

- 6) 고대슬라브어에는 근칭 지시사 *овь*도 있었는데, "*овь...*, *овь...* (어떤 것은..., 또 다른 것은...)" 용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근칭 지시사 변이형 *овь* 어간은 세르비아어/크로아티아어, 마케도니아어 및 그 주변 방언에서 *сь* 어간을 대신하게 되었고, 폴란드어 *ów*는 원칭으로 전환되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Мейе 1951:353, 정정원 2015b:각주10).
- 7) 이하 3단락의 내용은 정정원(2015b:165-166)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을 상실한 인칭대명사 той를 대신하여 근칭지시사 този가 등장했는데, 원칭지시사도 접미사 -зи가 붙어 онзи가 되었다 (Stieber 1979/2005:145, 정정원 2015b:166). 마케도니아어에서는 불가리아어 той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파생된 тој가 3인칭대명사뿐 아니라 원칭지시사가 되고, 슬로베니아어에서는 тъ가 근칭(та)과 원칭(tísti)을 모두 가리키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대슬라브어 지시사 중 съ는 대부분 현대어에서 자취를 감추고, онъ은 대부분 인칭대명사로 전환되었으며, тъ만이 모든 현대 슬라브어에서 지시사로 남아있는데, 단, 각각의 현대슬라브어에서 근칭과 원칭 지시사로 상이하게 분화된다.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세르비아어/크로아티아어(ovaj, onaj, taj), 마케도니아어 (овој, оној, то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대 슬라브어 지시사는 근칭과 원칭의 이원체계이다.

한편,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에서 역사적으로 근칭지시사였던 ten은 그 사용역을 확대한 결과 현대어에서 점점 그 직시성을 잃고 원근 중립적 지시사가 되어가고⁸⁾, 원래 ten이 담당했던 근칭 의미는 tento, tenhle 등이 유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근칭-원칭-중립”의 새로운 삼원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Hauenschild 1982, Kresin 2002:63).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근칭지시사 ten, този도 사용역이 매우 넓고, 원근 중립적 비직시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체코어, 슬로바키아어와 달리, 대안적 근칭지시사 형태가 추가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온전히 원근 중립적 지시사로 전환되지 못하고, 근칭지시사와 원근 중립적 지시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따라서 폴란드어, 불가리아어의 지시사는 “비원칭-원칭”의 이원체계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어의 경우 다른 대부분의 슬라브어와 마찬가지로 근칭지시사 этот이 폭넓게 사용되며, 원근 중립적 용법도 담당하지만, 원칭지시사 тот 또한 다양한 기능의 대명사 및 한정사로 문법화되어 원근 중립적으로 사용된다.

8) 이러한 거리 중립적인 직시사 ten은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에서 한정성을 획득하여, 정관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슬라브어 직시사의 한정적 용법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두 지시사는 원근 중립적 용법에서조차도 원래의 근칭, 원칭 의미를 완벽하게 상실하지 않는데(정정원 2016), 원근 중립적 용법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근원칭지시사가 서로로부터 변별되는 가장 본질적 자질이 근원칭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표면적으로는 원근 중립적 용법일지라도 원근적 뉘앙스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러시아어 지시사는 “근칭-원칭”의 이원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슬라브어의 경우, 담화 직시 기능,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기능, 한정적 기능을 중심으로 예문을 검토해보았을 때, 역시 두 개 이상의 직시사가 원근중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원근중립적 직시사의 역할을 세르비아어/크로아티아어, 마케도니아어는 주로 원칭지시사가 담당하고,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 슬로베니아어는 러시아어와 마찬가지로 원칭지시사와 근칭지시사가 모두 담당하고 있다.

원근 중립적 지시사들은 위의 표에서 두 번째 칼럼에 따로 표시했는데, 모든 현대 슬라브어에서 t-어간의 비파생적 지시사들이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다. 원근 중립적 직시사로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체코어와 슬로바키아어 ten을 제외한 다른 언어의 부분적 원근중립 지시사는 괄호 안에 표기하였고, 두 개 이상의 부분적 원근중립 지시사가 존재할 경우 담화 직시를 주로 담당하는 지시사를 앞에 배치하였다. 이 때 담화 직시 또한 동슬라브어를 제외한 모든 슬라브어에서 t-어간의 비파생적 지시사들의 주된 역할임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슬라브어의 담화 직시

1. 무표적 지시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어, 폴란드어, 불가리아어에서 근거리 대상을 지시할 때 사용하는 근칭지시사 этот(러), ten(폴), този(불)는 원거리 대상을 가리키는 원칭지시사 тот(러), tamten(폴), онзи(불)에 비해 전반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고, 사용영역도 넓다. 특히 폴란드어와 불가리아어의 원칭지시사는 사용역이 매우 협소해서, 대상의 실제적 원근감을 드러내는 외부조응적 직시

사로만 제한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칭지시사의 사용역은 다른 언어에서보다 훨씬 더 확장된다. 과거에는 근칭지시사였던 중립지시사 체코어 *ten*도 거의 외부조응적 직시로만 제한적으로 기능하는 근칭지시사 *tento*, *tenhle*, 원칭지시사 *tamten*, *onen*에 비해 그 사용빈도와 사용영역이 압도적이다.

러시아어,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근칭지시대명사 *это*, *to*, *това*, 체코어 원근 중립적 지시대명사 *to*는 가장 무표적인 지시사로 그 사용역이 넓어, 직시뿐 아니라 대응적 용법으로도 사용된다. (3)의 지시대명사들은 선행 명사 *лесть* (러), *ласкательство* (불), *pochlebstwo* (폴), *lichotka* (체)를 공지시하는 대응사로 사용되었다. 주격 인칭대명사의 탈락이 무표적인 대부분의 슬라브어에서 지시대명사 주격형은 보다 활발하게 대응사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 (3)⁹⁾ a. **러** И как бы ни груба была [лесть]_I, в ней непременно,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половина кажется правдою. И это_{prox} для всех развитий и слоев общества. Даже весталку можно соблазнить лестью.(Ф.М.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6-IV) (아침하는 말이 아무리 조악해도 당연히 거기에는 적어도 절반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회의 계층과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성녀까지도 아침으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 b. **폴** Nawet w najprymitywniejszym [pochlebstwie]_I na pewno przynajmniej połowa wydaje się prawdą. I to_{prox} bez względu na stopień rozwoju człowieka i sferę. Nawet westalkę można uwieść pochlebstwem, cóż dopiero zwykłego śmiertelnika.
- c. **체** A i kdyby byla [lichotka]_I sebehrubši, určitě se bere nejméně z poloviny vážně. A to_{neut} platí pro všechny společenské stupně a vrstvy. Lichotkami svedete i vestálku! Natož pak normální

9) 동일 내용의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불가리아어 텍스트의 한국어 해석은 원문 바로 다음에만 병기하도록 하겠다. 또한 대명사와 그것의 선행사에는 동일한 번호를 붙여서 표시하고, 대명사에는 근칭(proximal demonstrative pronoun) - prox, 원칭(distal demonstrative pronoun) - dist, 원근중립(neutral) - neut, 인칭(personal demonstrative pronoun) - pers와 같은 약어를 첨부하도록 하겠다.

lidi!

- d. **불** И колкото и грубо да е [ласкателството]₁, в него винаги поне половината изглежда истина. И **това**₁ ровх важи при всяко образование и за всички слоеве на обществото. Дори весталка може да се съблазни с ласкателство.

또 다른 원근 중립적 지시인 담화 직시도 거의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근칭 지시대명사 중성 단수형 to, това와 체코어 중립지시대명사 중성 단수형 to의 몫이다.

물론 러시아어에서도 담화 직시는 무엇보다 근칭지시대명사 중성단수형 это에 의해 수행되지만, 원칭지시대명사 to도 배제되지 않는다. 러시아어에서는 담화 직시에서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원칭지시사의 사용이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체코어에 비해 활발하다.

러시아어 t-어간의 비파생적 원칭지시사는 외부조응적 직시, 즉 실제 대상과 화자의 원거리를 표현하는 것 이외에, то, что 절(‘--하는 것’)이나 тот, кто 절(‘--하는 사람’) 등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тот момент(그 순간), тот человек(그 사람) 등과 같은 한정사, 선행발화의 비주어인 비선호중심을 지시하는 대명사(정정원 2015b)로 기능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법화되어 사용된다¹⁰⁾.

- (4) **러.** Мудр не **тот** dist. кто знает многое, а **тот** dist. кто знает нужное.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걸 아는 사람이 현명하다.)
- (5) **러.** Если бы я был в клубе в **тот** dist. момент, этого, безусловно, не произошло бы. (Спорт Экспресс 2016.9.18.) (만약 제가 그때 클럽에 있었다면,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 (6) **러.** К [кастрату]₁ раз пришел скрипач. Он₂ был бедняк, а **тот** dist богат. (А.С.Пушкин)
(어느 날 바이올리니스트가 카스트라토에게 왔다. 전자는 가난했지만,

10) 슬라브어 지시대명사의 원근 중립적 사용과 그것의 문법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연구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여기에서는 러시아어 원칭지시사의 예문만 제시한다.

후자는 부유했다)

(4), (5), (6)에서 러시아어 원칭지시사가 수행한 기능은 폴란드어, 체코어에서는 각각 근칭지시사 *ten*과 중립지시사 *ten*의 몫이다. 불가리아어에서는 (4), (5)는 근칭지시사 *този*가, (6)는 원칭지시사 *онзи*가 수행하는데, (6)의 선행발화의 비선호중심 지시는 불가리아어에서 원칭지시사의 기능으로 고정되지 않아, 선호중심, 비선호중심이 중화된 채 인칭대명사로 공지시되는 경우가 더 많다. 즉, 주어진 기능에서 원칭지시사의 역할이 러시아어만큼 독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폴란드어, 체코어, 불가리아어 모두에서 원칭지시사의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폭넓은 사용역을 가진 원칭지시대명사 *то*가 담화 직시에서 배제되진 않지만, 러시아어에서도 보다 널리 사용되는 무표적 담화 직시사는 근칭지시대명사 *это*이며, 이 때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대응어는 대체로 근칭지시대명사 *to*, *това*, 체코어 대응어는 원근 중립적 지시대명사 *to*이다.

다음에서 러시아어 문장 “запор сейчас выскочит(걸쇠가 풀릴 것이다)”, 폴란드어 “rygiel lada chwila wyskoczy”, 불가리아어 “да изскочи”, 체코어 “užuž vyskočí”은 모두 그 다음 발화에서 근칭지시대명사 *это*, *to*, *това*와 중립지시대명사 *to*로 공지시된다.

- (7) a. **러.** В ужасе смотрел Раскольников на прыгавший в петле крюк запора и с тупым страхом ждал, что вот-вот и запор сейчас выскочит₁. Действительно, это₁ прох казалось возможным: так сильно дергали. (Ф.М.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1-VII) (라스콜니코프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덜컹이는 걸쇠의 빗장을 바라보고, 공포 속에서 걸쇠가 이제 곧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로 그건 가능해보였다. 아주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 b. **폴.** Raskolnikow patrzył z przerażeniem, jak rygiel skacze w skoblu, i otepiały ze strachu czekał, że rygiel lada chwila wyskoczy₁. A było to₁ proх zupełnie możliwe: tak mocno szarpano drzwi.

- c. **체**. Raskolnikov zděšeně zíral na nadskakující petlici a s tupou hrůzou čekal, že [užůž vyskočí]₁. A opravdu se mu to_{1 neut} zdálo možné.
- d. **불**. С ужас глядеше Расколников скачащото резе и с тъп страх очакваше всеки момент да [изскочи]₁. Това_{1 прох} наистина изглеждаше възможно: толкова силно дърпаше онзи.

담화 직시사가 ‘우리가 회귀불가능하게 과거로부터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선행발화를 지시하는 (8)에서도 러시아어,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모두 근칭지시대명사가, 체코어에서는 중립적 지시대명사가 사용된다.

- (8) a. **러**. - Одним словом, [мы безвозвратно отрезали себя от прошедшего]₁, а это_{1 прох}, по-моему, уж дело-с... (Ф.М.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2-V)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그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되었고, 제 생각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 b. **폴**. Slowem, [zerwaliśmy bezpowrotnie z przeszłością]₁, а to_{1 прох} już jest, moim zdaniem, krok pozytywny.
- c. **체**. Jedním slovem, [nenávratně jsme odvrhli přítěž minulosti]₁, а to_{1 neut} je podle mne už nějaký čin, prosím...“
- d. **불** С една дума, [ние безвъзвратно се откъснахме от миналото]₁, а това_{1 прох} според мене вече е нещо...

영어 담화 직시에서 후조응(cataphora)은 담화 직시사로 보다 무표적인 that 이 아닌 유표적인 this로 지시하는데(Lakoff 1974:350, Fillmore 1982:53-54, Himmerman 1996:212, Diessel 1999:101 등), 이것은 원칭지시사가 청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를 지시하는 반면, 근칭지시사는 청자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정보를 소개하는 수단으로 보다 적절하기 때문이다(정정원 2016:25-32). 보다 무표적인 담화 직시사가 근칭지시대명사인 러시아어, 폴란드어, 불가리아어에서도 후조응은 당연히 근칭지시대명사의 몫이다¹¹⁾. 근칭지

시대명사 *tohle, toto*가 담화 직시사로 잘 사용되지 않는 체코어에서는 원근 중립적 지시대명사가 후조응을 담당한다. (9)는 이러한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의 후조응의 예시이며, 주어진 텍스트의 불가리아어 버전에서는 공교롭게도 후조응사가 생략되어¹²⁾ 다른 관련 예문 (10)을 덧붙였다.

(9) a. 러-- Но позвольте, позвольте же мне, отчасти, всё рассказать...

как было дело 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хотя это_{1 prox} и лишнее, согласен с вами, рассказывать, -- но [год назад эта девица умерла от тифа...(중략)]₁ (Ф.М.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2-1)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제 입장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선생님 말씀대로 이걸 얘기하는 게 쓸모없긴 합니다만, 일 년 전 그 여자 아이가 티푸스로 죽고...)

b. 폴— Ale przepraszam, przepraszam, niechże mi pan pozwoli po części wyjaśnić... jak się to zaczęło i...ze swej strony... choć to_{1 prox} może jest zbyt, zgadzam się z panem, ale [rok temu panna ta umarła na tyfus.. (중략)]₁

11) “죄와 벌”에서는 원칭지시사가 후행하는 담화를 공지시하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이것은 *то, что*의 이형으로 간주된다(정정원 2016:27-29).

(a) – Но позвольте, как же у них такое противоречие вышло: сами уверяют, что стучались и что дверь была заперта, а через три минуты, когда с дворником пришли, выходит, что дверь отперта?

– В том_{1 dist} и штука: [убийца непременно там сидел и заперся на запор; и непременно бы его там накрыли, если бы не Кох сдурил, не отправился сам за дворником. А он именно в этот-то промежуток и успел спуститься по лестнице и прошмыгнуть мимо их как-нибудь.]₁ (Ф.М.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2-1)

(“하지만 어떻게 그런 모순이 생기죠? 그들 자신이 두드렸을 때는 문이 잠겨 있었다 주장하면서, 3분 후에 수위와 함께 도착했을 때는 문이 열려 있었다뇨?”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살인자가 거기에 앉아, 빗장을 잠갔던 거죠. 만약 코흐 자신이 수위를 부르러 가는 바보짓을 하지 않았다면, 그를 거기서 발견했을 겁니다. 살인자는 바로 이 때 계단을 내려가서 그들을 피할 수 있었죠.”)

12) 참고로 주어진 텍스트의 불가리아어 버전은 다음과 같다.

(a) 불-- Но позволете, позволете ми отчасти всичко да разкажа... кое как беше и... на свой ред... макар че няма нужда, съгласен съм с вас... да о₁ ви разкавам – но [преди година тази девойка умря от тиф...(중략)]₁

c. 체 „Ale, dovolte mi, dovolte mi přece, abych vám zčásti vyložil... jak to vlastně bylo... i já... ačkoliv, docela s vámi souhlasím, je možná zbytečné, abych vám to₁ neut tu vykládal, ale před rokem ta dívka zemřela na tyfus...(중략)」

(10) 불. – Авдотья Романовна, ако аз изляза сега от тази врата при такова заявление, то – знайте това₁ prox – вече никога няма да се върна」. Обмислете добре! Думата ми е категорична. (Ф.М.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4-II) (“아브도찌야 로마노브나, 만약 내가 지금 이 문으로 나가면, 그렇게 작별하게 되면, 이걸 잘 알아두시오. 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요. 잘 생각하십시오! 내 말은 단호하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빈도와 사용영역에서 무표적인 러시아어,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근칭지시사와 체코어 원근 중립 지시사가 주로 담화 직시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들 언어에서 원칭지시사나 인칭대명사가 담화 직시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것은 의미적, 기능적 유효성을 띠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차례로 살펴보겠다.

2. 유효적 지시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어에서는 원칭지시사가 원근 중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그 중 상당수는 특정 기능으로 문법화되었다. (11a)의 러시아어 to가 그러한 예로, 이것은 to, что구문에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문법화가 완료된 to의 과도기적 이형(정정원 2016:27-30)으로 보이는데, 보다 활용빈도가 높고 사용역이 넓은 근칭지시대명사 это로 대체될 수 없다. 폴란드어, 불가리아어에서는 이러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역할을 무표적 근칭지시대명사가, 체코어에서는 원근 중립적 지시대명사가 담당한다.

(11) a. 러.-- Вы много сказали любопытного о характере брата и...
сказали беспристрастно. Это хорошо; я думала, вы перед

ним благовоете, -- заметила Авдотья Романовна с улыбкой.
 -- Кажется, и то dist верно, что [возле него должна находиться женщина], -- прибавила она в раздумье. (Ф.М.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3-II) (“오빠의 성격에 관해 흥미로운 걸 많이 말해주셨고, 치우치지 않게 말해주셨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전 오빠를 숭배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브도찌야 로마노브나는 미소 지며 지적했다. “오빠 옆에 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생각에 잠겨 덧붙였다.)

- b. **폴** Powiedział pan wiele ciekawych rzeczy o charakterze mego brata i... powiedział bezstronnie. Te dobrze; sądziłam, że pan ma dla niego bezkrytyczny podziw - rzekła Dunia z uśmiechem. - I to prox chyba racja, że [byłaby mu potrzebna opieka kobiety]. (1984¹³⁾)
- c. **체** „Řekl jste nám mnoho zajímavého o bratrově povaze a... hlavně jste to řekl nezaujatě. Jsem tomu ráda, měla jsem totiž dojem, že k bratrovi tak trochu vzhlížíte,“ poznamenala Avdot'ja Romanovna s úsměvem. „Myslím, že je pravda i to neut, že [by k sobě potřeboval ženu],“ dodala zamyšleně.
- d. **불** - Виe казахте много интересни неща за характера на брат ми, и то...безпристрадно. Това е добре ; аз мислех, че виe благовоете пред него – обади се Авдотя Романовна с усмивка. – Струва ми се, право е и това prox, че [край него трябва да има жена] – добави тя замислено.

폴란드어, 체코어, 불가리아어와는 달리 러시아어 원칭지시대명사는 문법화된 то, что절이 아닌 통사적으로 보다 자유로운 담화 직시 기능도 자주 수행한다. 이 때 러시아어 원칭지시대명사 то는 일차적 외부조응적 직시 의미를 담화 직시에 반영하여, 주어진 담화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가미하며 자신만의 변별적 기능을 수행한다.

13) “죄와 벌”의 폴란드어 번역본은 두 개의 판본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2002년 번역본을 사용하나 필요시 1984년 번역본을 참고하고 따로 표시하도록 하겠다.

러시아어에서는 유표적 원칭지시대명사 *то*뿐 아니라 무표적 근칭지시대명사 *это*도 실제적 원근과 무관한 담화 직시사로 사용될 때조차 어느 정도 근거리감을 암시한다. 담화 직시사 *это*에서는 주어진 담화가 화자와 지각적, 감정적, 심리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지시 사건이 화자 또는 서술자의 시간과 실제적 혹은 심정적으로 가깝거나, 그것이 화자의 현재 관심의 대상인 전경적 정보이거나, 혹은 청자는 알지 못하고 화자만 아는 새로운 정보임을 드러낸다. 한편, *то*는 화자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담화를 암시한다. 그 원거리감은 지각적으로 직접적이지 않거나, 감정적,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거나,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어, 특히 과거의 것이거나, 화자의 현재 관심의 대상이 아닌 배경적 정보이거나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상정되는 구정보에서 드러난다. 즉, *то*는 주어진 담화가 지시하는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실제적, 시간적 원거리감과 서사적 배경성 및 비현재성을 드러낸다 (정정원 2016).

이 때 통사적으로 자유로운 담화 직시사 *то*가 만들어내는 변별적 의미는 어휘의미나 문법의미가 아니라 화용적 의미이므로 이것을 보다 무표적 담화 직시사 *это*로 바꾸어도 큰 무리가 없다¹⁴⁾. 따라서 다른 슬라브어 번역에서도

14) 현대 러시아어에서 몇몇 원칭지시사 *то*는 구식 표현처럼 들리기도 한다(Ревзин 1973:123). 예를 들어 다음 뽀쉬킨 작품의 *то*는 *это*로 바꿔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즉, 러시아어에서 담화 직시사 *то*는 점점 더 그 사용영역이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 **[В это время кто-то с улицы взглянул к нему в окошко и тотчас отошел.]**

Герман не обратил на **то** _{dist} никакого внимания. (А.С. Пушкин) (그 때 바깥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통해 그를 바라보다가 사라졌다. 게르만은 그것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심사자 한 명이 (a)의 어색함이 지시적 중의성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Герман이 대명사 *этот*이나 *он*으로 표현되지 않아 중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주동성(protagonisthood)이 낮은 *то*를 굳이 사용할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대 러시아어 지시사 *то*의 중요한 특징을 지적하고 있지만, (a)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a)의 *то*가 지시하는 것은 구체적 대상이 아니라 담화이기 때문에 Герман이 *он*으로 지시되었다 하더라도 지시사 간의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지시적 중의성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우며, 둘째, 일반 대응에서 *то*보다 주동성이 높은 *оно*가 담화 직시에서는 사격형태로 사용될 수 없어 주동성 위계에서 아예 배제되는 등, 일반 대응과 담화 직시의 대명사 위계가

그것을 굳이 원칭직시사로 바꾸지 않고, 대부분 원근 중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근칭지시사나 원근 중립적 지시사로 번역한다.

(12)의 러시아어 텍스트에서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루진은 그것에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며 원칭지시사 *то*를 사용했지만 사실 근칭지시사 *это*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다른 슬라브어에서도 근칭지시사와 중립적 지시사로 번역되었다.

- (12) a. **러**-- Нет, не общее место-с! Если **[мне]**, например, **[до сих пор говорили: "возлюби", и я возлюблял]**¹, то что из **того**_{dist} выходило? -- продолжал Петр Петрович, может быть с излишнею поспешностью, -- выходило то, что я рвал кафтан пополам, делился с ближним, и оба мы оставались наполовину голы, по русской пословице: "Пойдешь за несколькими зайцами разом, и ни одного не достигнешь". Наука же говорит: возлюби, прежде всех, одного себя, ибо всё на свете на личном интересе основано. Возлюбишь одного себя, то и дела свои обделаешь как следует, и кафтан твой останется цел. (Ф.М.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2-V) ("아닙니다. 허튼소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내게 사람들이 "사랑하라"고 말했고, 내가 사랑에 빠졌다면, 거기서 나온 결과가 뭐니까?" 뽀뜨르 뽀뜨로비치는 쓸데없이 서두르며 계속했다. "내가 걸옷을 반으로 잘라 가까운 이들과 나누고, 우리 둘다 반씩 헐벗게 되는 것, 러시아 속담의 "두 마리 토끼를 쫓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게 그 결과입니다. 학문에서도 말하죠. 모든 사람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건 개인적 이익에 기반하니까요. 자신만 사랑하면 일은 당연한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러시아어에서 (a)의 *то*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대응사 *тог*, *этот*, *он*의 주동성 위계보다는 *то*의 활발한 문법화에 따른 직시성 상실¹이 통사적으로 자유로운 담화 직시사 *то*의 존재 이유를 약화시킨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러시아어에서 *тог*의 사용역 축소는 추후 보다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로 보이며,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준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방향으로 흘러가고, 길웃은 멀쩡하게 남습니다.)

- b. 폴- Nie, nie frazes! Jeżeli na przykład [nakazywano mi dotychczas: "miluj bliźniego", i ja go umilowałem], to_{1 prox} jaki był skutek? - ciągnął dalej Piotr Pietrowicz ze zbytnim, być może, pośpiechem. - Skutek był ten, że rozdzierał swoją opończę na pół, dzieliłem się z bliźnim, i obaj zostawaliśmy na wpół nadzy, podług rosyjskiego przysłowia: "Kto ściga dwa zające naraz, ten nie chwytą żadnego." Nauka zaś powiada: ukochaj przede wszystkim siebie, wszystko bowiem w świecie zasada się na korzyści osobistej. Gdy ukochasz tylko siebie, to i własne interesy poprowadzisz jak należy, i opończa twoja będzie cała. (1984)
- c. 체. „Ne, prosím, ani zdaleka ne nekonkrétní! Jestliže [mi] například [doposud říkali 'miluj' a já miloval], jaký to_{1 neut} mělo výsledek?“ pokračoval Petr Petrovič možná až zbytečně kvapně. „Ten, že jsem roztrhl plášť svůj napůl a dělil se s bližním a že jsme oba zůstávali napůl nazí, podle ruského přísloví: Kdo dva zajíce honí, žádného nechytí! Věda však praví: miluj především sama sebe, neboť všechno na světě spočívá v osobním zájmu. Budeš-li milovat sama sebe, vykonáš řádně i svou práci a plášť tvůj zůstane celý.“
- d. 불- He, не са общи приказки! Ако [на мене] например [досега ми казваха: „Обичай“ и аз обиквах], какво излизаше от това_{1 prox} ? – продължи Пьотр Петрович може би с излишна прибързаност. – Излизаше това, че аз раздирах дрехата си на две, давах едната половина на ближния си и ние и двамата си оставахме наполовина голи, според руската пословица: „Който иска да удари с един камък два заека наведнъж, не улучва нито един.“ А науката казва: обикни преди всичко самия себе си, защото всичко на този свят почива на личния интерес. Обичаш ли само себе си, и работите си ще подредиш, както трябва, и дрехата ти цяла ще остане.

(13)에서 “그것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어떤 형태로든 당신이 알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 또한 현재의 실제 상황이 아니고 가정적 상황으로 화자의 시간 및 세계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어에서 원칭 지시대명사 *то*가 사용되었지만, 원칭지시사에 그러한 기능이 없는 불가리아어와 체코어에서는 근칭지시대명사 *това*와 원근 중립적 지시대명사 *то*로 번역되었다¹⁵⁾.

- (13) a. 러 **러** Если [каким бы то ни было образом вы знаете и укажете нам, где он теперь находится]₁, то, уверяю вас честным словом, беру всех в свидетели, что дело **тем₁** dist только и кончится. (Ф.М.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5-III) (만약 그것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어떤 형태로든 아가씨가 알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이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고서라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데, 상황은 그걸로 종료될 겁니다.)
- b. 체 **체** Jestliže [nějakým způsobem víte a řeknete nám, kam se bankovka poděla]₁, pak vám dávám své čestné slovo a беру si za svědky všechny přítomné, že **tím₁** neut bude pro mne celá záležitost vyřízena.
- c. 불 **불** Ако [вие по някакъв начин знаете и ни посочите къде се намира сега]₁, то, давам ви честната си дума и призовавам всички за свидетели, работата ще се свърши само с **това₁** prox.

러시아어 (14a)의 *то* 또한 주어진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시간적 원거리감을 드러낸다. 바로 앞 선행 텍스트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 이전 문맥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시 사건 “노파를 살해하는 일”을 라스폴니코

15) 폴란드어 버전은 주어진 부분을 담화 직시사로 직역하지 않고, “상황은 더 발전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의역하였다.

(a) 폴 O ile [pani jakimś sposobem wie i wskaże nam, gdzie on się obecnie znajduje]₁, to daję słowo honoru, biorąc wszystkich na świadków, że sprawa nie będzie miała dalszych następstw.

프가 정말 하게 될지 확실치 않으며, 그걸 한다면 언제 하게 될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것은 그에게 시간적, 심리적으로 아직 거리가 있는 미래 사건이고 따라서 원칭지시대명사 *to*로 그 원거리감을 표현했다. 폴란드어와 체코어본에서는 이것을 원칭지시대명사 *tamto*와 *tamto*로 번역하였는데, 이들 언어에서 원칭지시대명사는 보통 담화 직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예외적이다. 러시아어 원본에서 원칭지시사를 이탤릭체로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 원거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원칭지시사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가리아어 번역본에서는 원거리성이 드러나지 않는 무표적 근칭지시대명사 *това*와 인칭대명사 *to*로 번역했는데, 비록 이 때 주어진 사건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은 암시되지 않지만, 그것이 지시하는 사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문장 의미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¹⁶⁾. 사실 이 때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에서도 원칭지시대명사 *to*, *tamto*, *tamto* 대신, 보다 무표적인 근칭지시대명사와 원근 중립적 지시대명사를 써도 마찬가지로 그것의 지시 사건은 달라지지 않는다. 단지 화자가 주어진 담화에 대해 갖는 원거리적 뉘앙스가 사라질 뿐이다.

(14) a. 러 "Гм... к Разумихину, – проговорил он вдруг совершенно спокойно, как бы в смысле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решения, – к Разумихину я пойду, это конечно... но – не теперь... Я к нему... на другой день, после *того*_{1 dist} пойду, когда уже *то*_{1 dist} будет кончено и когда всё по-новому пойдет..."

И вдруг он опомнился.

"После *того*_{1 dist}, -- вскрикнул он, срываясь со скамейки, – да разве *то*_{1 dist} будет? Неужели в самом деле *О*₁ будет?"
(Ф.М.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1-V) ("음, 라주미힌에게 최종 결정에 도달했다는 듯, 그는 갑자기 아주 평온하게 말했다. '난 라주미힌에게 가겠어. 물론 지금은 아니지. 난 그에게 다음날, 그것 다음에, 그게 이미 끝나고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될 때

16) 이 때 담화 직시사로 사용되는 근칭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의 문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

- 갈거야.’ 그리고 갑자기 그는 다시 생각했다. “그것 다음이라” 그는 벤치에서 일어서며 소리쳤다. “그걸 하게는 될까? 정말 그렇게 될까?”
- b. 폴 „Hm... do Razumichina — powiedział naraz całkiem spokojnie, jakby powziął ostateczną decyzję — [do Razumichina, oczywiście, pójdę...] ale nie teraz... Pójdę do niego... nazajutrz po tamtym₁ dist, kiedy tamto₁ dist już się stanie i wszystko się odmieni...”W tym momencie opamiętał się.
- „Po tamtym₁ dist —krzyknął, zrywając się z ławki.—A czy tamto₁ dist w ogóle się stanie? Czyżby rzeczywiście Ø₁ miało się stać?”
- c. 체 Hm... k Razumichinovi, promluvil náhle naprosto klidně, jako by pronášel konečné rozhodnutí, k Razumichinovi zajdu, jak by ne... ale – ne teď... zajdu k němu... nazítří po tamtom₁ dist, až budu mít tamto₁ dist za sebou a všechno půjde novou cestou... A náhle se vzpamatoval.
- „Po tamtom₁ dist!“ vykřikl a vyskočil z lavičky„Ale copak k tamtomu₁ dist dojde? Copak k tomu opravdu Ø_{impers.} dojde?“
- d. 불, Хм... при Разумихин – каза той изведнѣж съвсем спокойно, сякаш в смисъл на окончателно решение, – при Разумихин аз ще отида, разбира се... но – не сега... При него... на другия ден след това₁ prox ще отида, когато то₁ pers вече бъде свършено и когато всичко тръгне поновому...”
- И изведнѣж се опомни.
- „След това₁ prox – извика и скочи от пейката,—та нима то₁ pers ще стане? Нима наистина ще Ø₁ стане?“

러시아어 텍스트 (15a)에서도 “그들이 나를 매우 사랑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서술자는 그 명제를 원칭지시사 to₂로 지시하면서 자신에 대한 그들의 사랑에 감정적 거리를 유지한다. (15a)의 첫 번째 담화 직시사 это₁가 지각동사의 보어로서 직시성을 드러내고, 세 번째 담화 직시사 это₃가 발화 순간 깨닫게 된 명제에 대한 시간적 근거리성을 표출하기 위해 반드시 근칭지시사가 되어야 하는 반면, 그러한 제한이 없는 두 번째 담화 직시사에서는 to₂로 감정적 원거리성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15a)의 to₂가 드러내는 거리감은

(14a)와 마찬가지로 어휘 의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칭지시사 это로 바뀌도 지시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14a)와 달리 도스토옙스키 혹은 라스콜니코프에 의해 강조되지도 않아 원칭지시사 то 사용의 당위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불가리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번역에서는 담화 직시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원칭지시대명사로 원거리성을 강조하기 보다 무표적 근칭 및 중립 지시대명사로 주어진 명칭에 대한 화자의 원근 거리감을 중화시키고 있다.

- (15) a. 러 "[Я зол]₁, я это_{1 prox} вижу, – думал он про себя, устыдясь через минуту своего досадливого жеста рукой Дуне. – Но зачем же [они сами меня так любят]₂, если я не стою того_{2 dist} ! О, если б я был один и никто не любил меня, и сам бы я никого никогда не любил! Не было бы всего этого! А любопытно, неужели [в эти будущие пятнадцать – двадцать лет так уже смирится душа моя, что я с благовоением буду хныкать пред людьми, называя себя ко всякому слову разбойником]₃? Да, именно, именно! Для этого_{3 prox} -то они и ссылают меня теперь, этого_{3 prox} -то им и надобно... (중략) (Ф.М. 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6-VII) (‘난 나쁜 놈이지. 난 그게 보여.’ 잠시 후 그는 두나에게 한 자신의 불쾌한 손짓을 부끄러워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그럴 가치가 없다면, 왜 그들은 나를 그리 사랑한단 말인가! 오, 만약 내가 혼자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 자신도 절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게 없다면! 이 앞으로 15-20년 동안 내 영혼이 순수해져서, 나 자신을 강도로 칭하며, 사람들 앞에서 은총의 말을 하며 호느끼게 될까? 그래 바로 그거야, 그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이 날 지금 유배 보내고, 이것이 필요한 거지...)
- b. 폴. „, [Jestem okrutny]₁, sam to_{1 prox} widzę — pomyślał, zawstydzivszy się po chwili swego gwałtownego gestu wobec Duni. — Ale dlaczego [one mnie tak kochają]₂, skoro nie jestem tego_{2 prox} wart! Ach, gdybym był sam, przez nikogo nie kochany i gdybym nikogo nie kochał! Nie zdarzyłyby się to wszystko! Ciekawe, czy [po tych piętnastu lub dwudziestu latach dusza

moja skruszeje do tego stopnia, że będą pokornie skamlal przed ludźmi, nazywając się co drugie słowo mordercą]₃? A właśnie, właśnie! Przecież po to_{3 prox} właśnie mnie ześlą, to_{3 prox} jest im potrzebne...(중략)“

- c. 체. [Jsem na ně zlý]₁, to_{1 neut} vidím sám, přemítal, neboť se vzápětí za ten svůj podrážděný posunek zastyděl. Ale proč [mě tedy mají tak rádi]₂, když si to_{2 neut} nezasloužím? Kdybych byl docela sám a nikdo mě nemiloval, tak bych také nikdy nikoho nemiloval! Všecko by bylo docela jiné! Rád bych věděl, jestli [má duše za těch příštích patnáct nebo dvacet let tak zkrátne, že budu před lidmi bohabojně fňukat a za každým slovem se nazývat zločincem]₃? Ale právě, právě! Právě proto_{2 neut} mě pošlou na nucené práce, právě toho_{2 neut} chtějí dosáhnout...(중략)
- d. бъл., [Аз съм злобен]₁, виждам това_{1 prox} – мислеше си той, засрамен след минута от яда, с който махна на Дуня. – Но защо [те самите така ме обичат]₂, ако аз не заслужавам това_{2 prox} ! О, ако бях сам и никой не ме обичаше и ако аз самият никога не бях обичал никого! Нямахте да го има всичко това! А интересно, нима [през тези бъдещи петнадесет-двадесет години дотам ще се смири душата ми че с благоговение ще хленча пред хората, наричайки се непрекъснато разбойник]₃? Да именно, именно! Те затова_{3 prox} ме и заточават сега, точно това_{3 prox} им трябва... (중략)“

이와 같이 러시아어,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체코어의 담화 직시에서 보다 유표적인 원칭지시사는 외부조응적 직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담화에 대한 화자의 원거리감을 드러낸다. 이 때 러시아어 원칭지시사는 담화 직시사로 보다 자주 사용되며, 그것이 표현하는 원거리성이 명시적이라기보다 암시적인 경우가 많아, 보다 중심적이고 무표적인 근칭 담화 직시사로 대체 가능한 반면, 다른 슬라브어 원칭지시사는 담화 직시사로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매우 드물게 담화 직시사로 사용된 경우에는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원거리성을 드러낸다. 외부조응적 직시 이외의 다른 기능을 거의 하지 않는 폴란드어, 체

코어, 불가리아어 원칭지시사는 매우 예외적으로 담화 직시사로 사용되었을 때에도 그것의 거의 유일한 기능인 외부조응적 직시 의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반면, 담화 직시 이외에 다른 용법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러시아어 원칭 지시사는 그 사용역이 비교적 넓어, 그것이 가진 본래의 원거리적 직시 의미는 어느 정도 약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외부조응적 직시에서 유표적으로 근거리성을 지시하는 근칭지시사가 따로 존재하는 현대 체코어에서는 중성단수 *toto*의 형태로 주어진 담화를 강조할 수 있다. (16)에서 대명사가 지시하는 내용은 문장 자체라고 할 수 없다. 라스플니꼬프가 소냐에게 자신의 범죄행각을 고백하며 특정한 문장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앞의 인지동사로만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6a)의 러시아어 담화 직시사는 특정 문장이 암시하는 실제 사실을 지시하며, 두 번째 담화 직시사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강조적 담화 직시사가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모두에서 근칭지시사로 번역되는데, 폴란드어, 불가리아어에서 근칭지시사는 무표적이지만, 체코어에서 근칭지시사는 유표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때 형태적으로 유표적인 체코어 *toto*는 ‘강조’라는 화용적 유표성도 가지고 있어, 그 사용 자체만으로도 지시 담화를 강조한다.

(16) a. 러. -- Угадала? -- прошептал он наконец. [중략]

Даже потом, впоследствии, когда она припоминала эту минуту, ей становилось и странно, и чудно: почему именно она так *сразу* увидела тогда, что нет уже никаких сомнений? Ведь не могла же она сказать, например, что она что-нибудь в этом роде предчувствовала? А между тем, теперь, только что он сказал ей это₁ прох, ей вдруг и показалось, что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на как будто это₁ прох самое и предчувствовала. (Ф.М. 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5-VI) (“이제 알겠어?” 결국 그가 속삭였다. [중략] 나중에 그녀가 이 순간을 상기했을 때조차도, 그녀는 이상하고 괴이하게 느껴졌다. 왜 그 때 그녀가 그렇게 바로 즉시 아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 사실 무언가 그 비슷한 걸 그녀가

예견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았나? 그런데 그가 그녀에게 그걸 말한 순간, 그녀는 다름 아닌 바로 그걸 예견한 것 같았다.)

b. 폴. -Zgadłaś? —wyszeptał wreszcie.[중략]

Nie miała wątpliwości: to była prawda! Później, gdy przypominała sobie tę chwilę, dziwiła się sama sobie: dlaczego właściwie wtedy od razu zrozumiała, że nie można mieć żadnych wątpliwości? Przecież niczego nie przeczuwała! A jednak, gdy tylko powiedział jej **to**_{1 prox}, odniosła wrażenie, że właśnie **to**_{1 prox} przeczuwała.

c. 체. „Uhodlas?“ zašeptal konečně.[중략]

Později, když na tu chvíli vzpomínala, dokonce se nechápavě a s údivem ptala sama sebe, proč tehdy poznala tak rychle, že už nemůže být žádná pochybnost? Nemohla by přece například tvrdit, že něco podobného tušila! A přece nyní, jakmile jí **to**_{1 neut} řekl, měla náhle dojem, jako by byla právě **toto**_{1 prox} tušila.

d. 불. – Сети ли се? – прошепна той най-после.[중략]

Дори по-късно, впоследствие, когато си спомняше за тази минута, ставаше ѝ страшно и чудно: защо именно тогава така изведнъж видя, че вече няма никакво съмнение? Нали не можеше да каже например, че е предчувствала нещо такова? А в същото време, сега, едва успял да ѝ **го**_{1 pers} каже – и вече ѝ се стори, че тя наистина тъкмо **това**_{1 prox} е предчувствала.

3. 인칭대명사

슬라브어에서 담화 직시가 지시대명사가 아닌 인칭대명사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불가리아어에서는 인칭대명사가 담화 직시사로 비교적 자주 사용되고, 러시아어에서는 자주는 아니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폴란드어와 체코어에서는 인칭대명사가 담화 직시사가 되는 경우를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¹⁷⁾.

17) 폴란드어 텍스트에서는 인칭대명사 *ono*가 담화 직시에 사용되는 경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체코어의 경우에는 선행하는 담화 직시 지시대명사를 인칭대명사 *ono*로

러시아어에서 3인칭대명사 중성형 оно가 담화 직시를 할 때 지시대명사 это, то와 달리 사격은 사용되지 않고, 주격만 사용된다. 담화 직시적 оно는 이렇게 형태적으로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 기능 또한 유표적이어서, 보다 무표적인 담화 직시사 это에 부재하는 화용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 즉, 특정 견해나 상황을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 관점이 아닌 객관화된 관점 혹은 타자의 관점에서 서술함을 암시함으로써, 독백적 텍스트에서 숨겨진 대화성을 드러낸다(Золотова, Онипенько, Сидорова 1998:286-287, 정정원 2016:9-17).

(17a)에서 밑줄로 표시한 담화 직시사는 선행하는 담화 자체를 지시하기보다는 실제 상황을 직접 가리키는데, 러시아어 근칭지시대명사 это는 화자가 직접 보게 된 루진의 행동과 상황을 가리키고, оно는 화자에 의해 인식되어 판단의 대상이 된 객관화된 사실을 가리킨다. 두 러시아어 담화 직시사의 차이는 인칭대명사를 담화 직시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폴란드어 (17b)와 체코어 (17c)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며, 모두 지시대명사 to로 동일하게 번역된다. 불가리아어 (17d)에서는 러시아어와 동일하게 근칭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로 번역되었지만, 이것이 불가리아어 인칭대명사 담화 직시사의 기능이 러시아어와 동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두 언어의 담화 직시사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다.

- (17) a. **러** - Я-то в уме-с, а вот вы так... мошенник! Ах, как это₁
прох низко! Я всё слушал, я нарочно всё ждал, чтобы всё понять,
 потому что, признаюсь, даже до сих пор оно₂ речь не совсем
 логично... Но для чего вы всё это₁ прох сделали - не понимаю.
 (Ф.М. 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5-III) (난
 제 정신입니다. 당신이 사기꾼일뿐!! 어떻게 그렇게 저급할 수가!
 난 모든 걸 귀 기울여 들었고, 모든 걸 이해할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고백하건데, 조금 전까지 그건 전혀 말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당신은 이 모든 짓을 저지른 겁니까.

공지시하는 예를 하나 발견했다. 이 예문은 뒤에서 제시하겠다.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 b. ~~폴~~— Jestem zupełnie przytomny, a pan jest... szubrawcem! Co za podłość! Ciągłe słuchałem, umyślnie cały czas czekałem, żeby dobrze zrozumieć, bo przyznaję, że do tej chwili nie jest to₂ prox zupełnie logiczne... Ale po cóż pan to₁ prox wszystko zrobił? Nie rozumiem.
- c. ~~체~~ „Jsem úplně při smyslech, prosím, ale vy jste... darebák! Taková podlost! Slyšel jsem všechno a naschvál jsem vyčkával, abych pochopil, oč běží, protože, přiznám se, ještě teď z toho₂ neut nejsem moudrý... Nepochopím, proč jste to₁ neut všechno provedl!“
- d. ~~불~~— Аз съм с ума си, а вие... сте мошеник! Ах, колко должно е това₁ prox ! Аз чух всичко, аз нарочно изчаках, за да разбера всичко, защото, признавам, и досега то₂ pers не е съвсем логично... Но защо направихте всичко това₁ prox – не разбирам.

러시아어 텍스트 (18a)의 оно는 외부자의 시선에서 주어진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즉 그것이 화자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라 대화상대자나 일반인들의 평가임을 가정하고 있다. 바로 뒤이어 등장하는 근칭 지시대명사 это는 그 기술이 화자의 관점임을 드러낸다. 즉, 텍스트 중간에서 타자에서 화자로 시점 이동이 일어난다. 이 경우 인칭대명사에서 지시대명사로의 변환은 지시담화의 변환이 아니라 시점의 변환이므로 사실 동일한 대명사로 지시하더라도 서사의 변화는 없다. 따라서 폴란드어 (18b)와 체코어 (18c)에서처럼 두 담화 직시사가 동일한 지시대명사로 표현되어도 무방하다. 한편, 불가리아어 (18d)에서는, ‘인칭대명사-근칭지시대명사’의 순서인 러시아어와 반대로, ‘근칭지시대명사-인칭대명사’의 순서로 전이가 일어나는데, 불가리아어 인칭대명사는 이 때 선행하는 근칭지시대명사를 내부조용한다. 즉, 러시아어 담화 직시 인칭대명사가 화자의 태도와 연관되며 의미-화용적 차원에서 변별성을 갖는다면, 불가리아어 담화 직시 인칭대명사는 텍스트 내 형식적 응집성 (cohesion)과 연관되며 보다 통사-화용적 차원에서 변별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¹⁸⁾

(18) a. **러** Прекомические иногда случаи случаются в этом роде-с.

Да оставь я иногo-то господина совсем одного: не бери я его и не беспокой, но чтоб знал он каждый час и каждую минуту, или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подозревал, что я всё знаю, всю подноготную, и денно и ношно слежу за ним, неусыпно его сторожу, и будь он у меня сознательно под вечным подозрением и страхом, так [ведь, ей-богу, закружится, право-с, сам придет да, пожалуй, еще и наделает чего-нибудь, что уже на дважды два походить будет, так сказать, математический вид будет иметь]¹, -- оно₁ pers и приятно-с. Это₁ proх и с мужиком сиволапым может произойти, а уж с нашим братом, современно умным человеком, да еще в известную сторону развитым, и подавно! Потому, голубчик, что весьма важная штука понять, в которую сторону развит человек. А нервы-то-с, нервы-то-с, вы их-то так и забыли-с! (Ф.М.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4-V) (이런 종류의 지나치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가끔씩 일어나죠. 제가 어떤 신사분을 혼자 내버려둔다면, 잡지도 않고 성가시게도 하지 않는다면, 단지 매순간 적어도 제가 모든 걸 살살이 알고 있고, 밤낮으로 뒤쫓으며,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는 걸 그가 알게 한다면, 그를 제 손바닥 위에 놓고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면, 그는 지쳐, 제 발로 걸어와서는 뭔가 2 더하기 2와 같은, 단순한 수학 계산 같은, 무슨 뻔한 짓을 저지를 겁니다. 그건 사실 좋은 일이지요. 이걸 무지랭이 사내한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인 꽤나 지성이 발달된, 매우 영리한 인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발달했는지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경, 신경, 당신은 그걸 잊고 있었어요.)

b. **폴** Czasem zdarzają się bardzo zabawne rzeczy w tym rodzaju. Nieraz, gdybym zostawił takiego jegomościa samemu sobie, nie

18) 주어진 사용이 문장 차원이 아니라 텍스트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화용론적이지 만, 발화와 발화 사이의 신타그마(синтагма)적 관계를 드러내며 특정 화자의 태도와 무관한 객관적인 규칙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통사론적이다.

aresztował go i nie niepokoił, ale on wiedziałby lub przynajmniej domyślał się w każdej godzinie i minucie, że ja wiem o wszystkim, o najmniejszym szczególe, dzień i noc śledzę bez przerwy, pilnuję, gdyby miał pełną świadomość tego i obawę, że go ciągle podejrzewam, to przecież, jak Boga Kocham, **musialby naprawdę stracić głowę i sam przyszedłby, a nawet zrobiłby coś takiego, co już będzie dowodem jak dwa razy dwa cztery, i będę miał matematycznie ścisłą pewność**_I, a **to**_{1 prox} jest przyjemne. Może się **to**_{1 prox} zdarzyć najgłupszemu chłopu, a cóż tu mówić dopiero o którymkolwiek z nas, o dzisiejszym inteligencie, zwłaszcza z pewnymi charakterystycznymi cechami. to już na pewno! Dlatego, mój drogi, wielka to sztuka poznać indywidualne cechy człowieka. A nerwy! Zapomniał pan o nerwach!

- c. 체 V tomhle směru se někdy přihodí velmi komické věci, prosím. Když nechám nějakého podobného pána, aby se zabýval sám sebou, když ho nezatýkám ani ničím neznepokojuji, ale když v každé hodině a každé minutě ví nebo aspoň se domýšlí, že vím všecko, že do případu vidím, že ho ve dne v noci sleduji a neúnavně hlídám, dostanu-li ho cílevědomě do rozpoložení neustálé nejistoty a obav, tak **lho to na mou duši vyvede z míry, to je jisté, a nakonec přijde sám a možná ještě vyvede něco, co bude jasné jako dvakrát dvě, co bude, abych tak řekl, čistá matematika**_I, a **to**_{1 neut} je příjemné. **To**_{1 neut} se může stát I venkovskému primitivovi, natož pak našinci, dnešnímu inteligentovi a k tomu určitým způsobem založenému člověku! Protože, milý příteli, rozpoznat, jak je kdo založen, je náramně důležitá věc! A nervy, nervy, prosím, na ty jste docela zapomněl!
- d. 불 Извънредно комични случаи от този род се случват понякога. Та ако аз остава някой си господин съвсем сам: да не го арестувам и да не го без покоя, но той да знае всеки час и всяка минута или поне да подозира, че аз всичко знам, всичките му тайни, и денонощно го следя, неуморно го пазя, и да го държа умишлено във вечно подозрение и

страх, Бога ми, ще [започне да се върти наоколо ми, сам ще дойде, а може би и ще вземе да направи нещо, което вече ще е ясно като две и две четири, така да се каже, ще придобие математическа форма]₁ – това₁ прох е приятното. То₁ pers може да се случи и с някой загубен селяк, а що се отнася до нашего брата, съвременен умния човек, особено ако е начетен в дадена насока – още повече! Затова, драги ми, защото е твърде важно да разбереш в каква насока е развит човекът. Ами нервите, нервите, тях вие просто забравихте!

한편, (19), (20)에서처럼 선행 담화 직시사가 없는 상황에서, 선행 담화 자체를 지시하는 러시아어, 폴란드어 지시대명사가 불가리아어에서 인칭대명사로 대응되는 경우를 적잖이 발견할 수 있다. “지루한 이야기”는 체코어 번역본을 구하지 못해 직접 비교하진 못하지만, 여러 다른 텍스트와 발화를 검토해보면, 체코어에서도 담화 직시는 무엇보다 지시대명사 to의 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폴란드어에서도 역시 담화 직시는 지시대명사 to의 기능이기 때문에, (19b), (20b)에서 인칭대명사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러시아어 인칭대명사 оно는 담화 직시가 가능한 하지만, 주격에 제한되어 있어, (19a), (20a)의 사격 담화 직시사는 인칭대명사로 전환될 수 없다.

- (19) a.러. [Она бывает у меня каждый день перед вечером]₁, и этого₁ прох, конечно, не могут не заметить ни соседи, ни знакомые. (А.П. Чехов, “Скучная история”) (그녀는 매일 저녁 전에 우리 집에 오곤 하죠. 그리고 물론 그걸 이웃들이나 지인들이 알아채지 못할 리 없어요.)
- b.폴. [Ø Bywa u mnie codziennie przed zmrokiem]₁, i tego₁ прох oczywiście nie mogą nie zauważyć ani sąsiedzi, ani znajomi.
- c.불. [Тя идва при мен всеки ден привечер]₁ и, разбира се, не могат да не го₁ pers забележат нито съседите, нито познатите.

- (20) a. **러. [Варя и Лиза обе ненавидят Катю].** [중략] И это_{1 prox} не оттого, что женщина добродетельнее и чище мужчины: ведь добродетель и чистота мало отличаются от порока, если они не свободны от злого чувства. Я объясняю это_{1 prox} просто отсталостью женщин. (А.П.Чехов, “Скучная история”)
 (바라와 리자는 둘 다 까짜를 싫어한다. [중략] 그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순결하고, 조신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조신함과 순결함은 그것이 악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죄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나는 이걸 단순히 여자들의 미개함으로 설명한다.)
- b. **폴. [Waria i Liza nienawidzą Kati].** [중략] I to_{1 prox} nie dlatego, że kobieta jest snotliwsza i czystsza od mężczyzn: wszak cnota i czystość niewiele różnią się od występku, jeśli nie są wolne od tego uczucia. tłumaczę to_{1 prox} po prostu zacofaniem kobiet.
- c. **불. [Варя и Лиза мразят Катя].** [중략] И О_{impers} не зашто жената е по-добродетелна и чиста от мъжа: та освободени от лошо чувство. Обяснявам си го_{1 pers} просто с изостаналостта на жените.

(19c), (20c)의 불가리아어 담화 직시 인칭대명사는 근칭지시대명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두 담화 직시사는 눈에 띄는 의미적 변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어진 예문을 불가리아어 원어민에게 문의했을 때, 구어체에서는 인칭대명사를, 문어체에서는 근칭지시대명사를 선호한다는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문체의 차이만은 아닌 듯 보인다. 즉, 구어체에서 담화 직시사로 인칭대명사를 선호하는 데에는 이것이 격변화 형태를 가지고 있어 어순에 있어 보다 자유롭기 때문일 것이다.

불가리아어 명사, 형용사에서는 이미 오래 전 격어미가 탈락하여, 현대 불가리아어에서는 통사적으로만 격이 표현된다. 격변화형이 없는 것은 근칭 및 원칭지시대명사도 마찬가지며, 형태적 격은 단지 인칭대명사에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명사류(имя)에 격 범주가 있는 다른 슬라브어에 비해 불가리아어에서는 어순이 좀 더 중요하다. (21)의 대답에서 화제가 되는 това가 어두가 아닌 어말에 자리 잡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물론 이 때 това가 어두에

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억양이 없는 필사된 글에서는 (21)과 같은 어순이 더 선호된다.

(21) **불**. - Кой знае това _{prox / acc} ?

- Всеки знае това _{prox / acc} . (Петрова и др. 2009:28)
 (“누가 그것을 알아?”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아.”)

또한 러시아어 (22a), 폴란드어 (22b)의 마지막 대사에서 화제가 되는 근칭 지시대명사의 사격형 этого, tego는 문두로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두 위치가 선호되는데 반해, 동일한 내용의 불가리아어 예문 (22c)에서는 지시대명사 това가 문미에 놓이는 것도 이것이 별도의 사격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22) a. **러** - Поезжай домой спать, - говорю я. - Завтра увидимся.

- Значит, [вы не считаете меня своим другом]1? - спрашивает она уныло.

- Я этого1 _{prox} не говорю. Но деньги твои теперь для меня бесполезны. (А.П.Чехов “Скучная история”)

“그만 집에 자러 가라” 내가 말한다. “우린 내일 보자꾸나.”

“그 말은 아저씨가 절 친구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그녀가 침울하게 묻는다.

“내 말은 그게 아니란다. 하지만 네 돈은 지금 나한테 필요가 없어.”)

b. **폴** -Jedź do domu pospać -mówię. - Jutro się zobaczymy.

- A więc [nie uważa mnie pan za swego przyjaciela]1? - pyta posepnie.

- Tego1 _{prox} nie mówię. Ale twoje pieniądze są teraz dla mnie bezużyteczne.

c. **불** - Върви да спиш - казвам, Утре ще се видим.

- Значи [не ме смяпате за своя приятелка]1? - пита тя нагъжено.

- Не съм казал това1 _{prox}. Но парите ти сега за мен са ненужни.

따라서 불가리아어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격변화되어 보다

어순이 자유로운 담화 직시사인 인칭대명사가 격변화되지 못하는 근칭지시사를 대신하여 문두로 자리를 옮기며 주어진 담화를 화제화시킨다.

앞의 예문 (19)을 다시 살펴보면, 러시아어와 폴란드어의 지시대명사 사격형 *этого*와 *tego*는 문장 주어가 아니지만, 화제로 두 번째 등위절의 가장 앞에 놓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가리아어에서도 근칭지시사 *това* 대신 3인칭 대명사 대격형 *го*를 사용하면, 문장의 주어와 보어를 도치시켜 화제가 되는 보어를 문두¹⁹⁾에, 초점이 되는 주어를 문미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강세 없는 접어(clitic)적 단형 인칭대명사 *го* 대신 강세 있는 자유 어순의 장형 인칭대명사 *него*가 사용된 발화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주어진 담화 직시적 *го*가 정보적으로 강조되지 않고, 오히려 정보적 중요도가 낮은 화제를 지시함을 반증하며, 단형 인칭대명사 *го*가 담화 직시의 중요한 화제화 수단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 (19) a. **러.** [Она бывает у меня каждый день перед вечером]_I, и ЭТОГО_{I prox}, конечно, не могут не заметить ни соседи, ни знакомые. (А.П. Чехов, “Скучная история”) (그녀는 매일 저녁 전에 우리 집에 오곤 하죠. 그리고 물론 그걸 이웃들이나 지인들이 알아채지 못할 리는 없어요.)
- b. **폴.** [Ø Bywa u mnie codziennie przed zmrokiem]_I, i tego_{I prox} oczywiście nie mogą nie zauważyć ani sąsiedzi, ani znajomi.
- c. **불.** [Тя идва при мен всеки ден привечер]_I и, разбира се, не могат да не го_{I pers} забележат нито съседите, нито познатите.

한편, 유사한 상황에서 주어가 아닌 불가리아어 근칭지시사 *това*를 문두에 배치할 수도 있는데, 이 때 그것이 주격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 그 뒤에 인칭 대명사 사격형을 병기하여 문두에 놓인 근칭지시사 *това*의 통사적 격을 명시 화해주기도 한다. 불가리아어 예문 (23d)과 (24d)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19) 언뜻 보기에 대격 인칭대명사 *го*의 위치가 두 번째 등위절의 가장 처음이 아니라 중간에 위치하는 듯 보이지만, 동사 미정형이 없는 불가리아어에서 양상어 *мога* (‘할 수 있다’)와 접속사 *да* 이후에 부정조사 *не* 뒤에 등장하는 *го*는 접어(clitic)로서 가능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23) a. **리.** -- Да вы на сей раз Алене Ивановне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те-с, -- перебил муж, -- вот мой совет-с, а зайдите к нам не просясь. **[Оно дело выгодное-с]₁.** Потом и сестрица сами могут сообразить **О₁.** (Ф.М.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1-V) (“이번엔 알레나 이바노브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말을 가로 막았다. “이게 제 충고입니다. 그러니 허가를 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들르십시오. 그게 유리합니다. 나중에 여동생분이 직접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 b. **폴.** — Nie potrza nawet dzisiaj o tym mówić Alonie Iwanownie — przerwał mąż — moja rada, przyjdź samej jutro i basta. **[То добрый интерес]₁.** A później **to₁ prox** i siostra się zmiarkuje.
- c. **체.** „Tak radši pro jednou Aleně Ivanovně o tom nic neříkejte,“ skočil jí do řeči muž, „dejte na má slova, neproste se jí a přijdte. **[Tenhle obchod se vám vyplatí]₁.** I sestřička **to₁ neu** potom uzná.“
- d. **불.** Но вие тоз път на Альона Ивановна нищо не й казвайте – прекъсна я мъжът й, – такъв съвет от мене, ами се отбийте при нас, без да я питате. **[Работата е много на сметка]₁.** **Това₁ prox** и сестра ви после ще **го₁ pers** разбере.

- (24)²⁰) a. **리.**-- **Эго₁ prox** я по подлости моей говорил... Мать у меня сама чуть милостыни не просит... а я лгал, чтоб меня на квартире держали и... кормили, -- проговорил громко и отчетливо Раскольников. (Ф.М.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2-III) (“그건 제가 비열한 마음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제 어머니는 구호품을 바라지 않았는데 저를 집에 들여 거둬 먹여줬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큰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 b. **폴.**—**to₁ prox** tylko z podłości tak mówiłem... Matka moja sama

20) 체코어 버전에는 담화 직시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직역하면 “제가 나쁜 놈이기 때문입니다”이다.

- (a) **체.** „Protože jsem mizera... Má matka sama div nemusí chodit po žebrotě... ale já lhal, aby mě nechala na bytě a... živila,“ řekl hlasitě a zřetelně Raskolnikov.

omalże nie zebrze... A ja kłamałem, byle tylko mnie z mieszkania nie wyrzucili i... dawali jeść — odpowiedział głośno i z naciskiem Raskolnikow.

- с. **불**.- **Това**_{prox} от подлост **го**_{pers} казах... Майка ми самата едва не проси милостиня... а пък аз лъжех, за да ме държат в квартирата и... да ме хранят –изрече високо и ясно Расколников.

이와 같이 지시대명사의 형태적 격이 부재하는 불가리아어에서 3인칭대명사는 사격의 담화 직시사를 화제화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불가리아어 담화 직시 인칭대명사의 또 다른 특징점은 (18)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 담화 직시사를 내부조용한다는 것이다.

영어에서도 지시사가 담화 직시사로 기능할 때, *that*이나 *this*로 지시된 담화는 그 다음 발화들에서 *it*으로 공지시될 수 있으며, (25)는 이를 보여주는 매우 전형적인 예문이다 (Webber 1988:119).

- (25) It's always been presumed that when the glaciers receded, the area got very hot. The Folsom men couldn't adapt, and they died out. **That**_{prox}'s what is supposed to have happened. **It**_{pers}'s the textbook dogma. But **it**_{pers}'s wrong. They were human and smart. They adapted their weapons and culture, and they survived. (Webber 1988:119)

이것은 인칭대명사가 근칭 및 원칭지시사에 비해 높은 주어집성을 가지고 있고, 텍스트의 테마 혹은 중심(center)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언어수단이기 때문이다. 군델 등(Gundel, Helberg, Zacharski 1993:279)의 주어집성 위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주어집성을 갖는 표현이 인칭대명사 *it*임을 확인할 수 있다.

- (26) 주어집성 위계(Gundel, Helberg, Zacharski 1993:279)

in focus > activated > familiar > uniquely identifiable > referential > type identifiable
 (관심상태)(활성화) (친근함) (유일한 것으로 확인) (지시적) (유형적으로 확인)
it this, that, that N the N indefinite a N
this N this N

물론 (26)의 주어집성 위계는 담화 직시가 아닌 대상의 지시표현을 바탕으로 설정된 것이다. 하지만 담화 직시 상황에서도 인칭대명사가 지시대명사보다 높은 주어집성을 가지고 있음은 (25)와 같은 전형적 담화 직시 텍스트에서 드러나며, 영어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의 차이는 담화 직시에서도 무엇보다도 주어집성의 차이로 할 수 있다. 이전 발화에서 활성화된 담화가 다음 발화에서 *this*나 *that*으로 지시되고, 그것이 관심 상태(in focus)에 놓이거나 중심(center)이 되어 그 다음 발화에서 다시 지시되면서 지시 담화의 주어집성이 보다 높아지면 그 때는 *it*로 공지시되는 것이다.

실제 대상을 공지시할 때는 선행발화에서 명사나 명사구로 표현된 ‘중심’이나 가장 높은 주어집성을 가진 ‘테마’를 인칭대명사로 바로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담화를 지시할 경우에는 대체로 그것을 지시대명사로 활성화시켜준 후에, 즉 그것을 화자와 청자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 후에, 그 다음 발화에서 비로소 인칭대명사 *it* 로 공지시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것은 *it*가 무엇보다도 특정한 명사나 명사구가 지칭하는 대상을 공지하는 대명사로 압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특정 담화를 지시대명사가 아닌 *it*로 공지시하면 그것이 특정 담화가 아니라, 담화 내 특정한 3인칭 명사나 명사구를 지시하는 것으로 곱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시대명사를 통한 담화 지시의 활성화 과정 혹은 담화 지시의 고정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지시대명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담화를 인칭대명사로 먼저 지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²¹⁾

폴란드어와 체코어에서 활성화된 담화는 각각 근칭 및 원근 중립적 지시대

21) 영어에서는 (28e)이 그러한 예이며, 불가리아어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어진 선행사 담화가 후행 발화에서 사격 대명사로 공지시되는 경우, 유일하게 격표지가 남아있는 인칭대명사가 단독으로 혹은 지시대명사와 병기되어 담화 선행사를 공지시한다.

명사 to와 to가 되고, 그것이 관심 상태에 놓여 그 다음 발화에서 다시 지시될 때 지시대명사 to와 to로 반복 지시된다. 이것은 위 예문 (18b), (18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폴란드어, 체코어에서는 활성화된 담화를 지시하는 인칭대명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²²⁾. pro-탈락이 두드러지는 폴란드어와 체코어에서 주격 인칭대명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그것이 테마 혹은 중심으로 유지되면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시대명사를 선행사로 갖는 화제 또한 인칭대명사로 표현되기 보다는 생략된다.

러시아어에서도 선행 담화를 지시하는 это가 반복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가끔은 (18a)처럼 это와 оно가 번갈아 나올 경우도 있지만, 이 때 인칭대명사 оно는 그것이 지시하는 담화의 정보적 가치, 즉 관심 상태나 중심과 무관하게 타자화된, 객관화된 관점을 드러내므로, 그 순서는 중요치 않다.

한편 불가리아어에서는 영어와 유사하게 활성화된 담화가 우선 근칭지시

22) “죄와 벌”에서 인칭대명사가 담화 직시 지시대명사를 공지시하는 체코어 예문을 하나 발견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체코어에서 담화직시는 무엇보다도 지시대명사의 기능이다. 참고로 (a)의 마지막 문장은 러시아어 원본에서 “Ну, нет, однако ж, улики-то существуют. (하지만 단서가 존재하잖아)”이고 폴란드어, 불가리아어에서도 러시아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였다. 따라서 주어진 용법의 다른 슬라브어와의 비교는 불가하다.

(a) 체. 'A kde jsi vzal ty náušnice?' -- 'Našel na chodníku.' - 'A pročpak jsi druhý den nepřišel s Mitrejem do práce?' -- 'Poněvadž jsem byl na tahu.' -- 'Kdepak jsi byl na tahu?' -- 'Leckde, na vícero místech,' - 'A proč jsi utekl od Duškina?' -- 'Protože jsem dostal moc velký strach.' -- 'Z čeho?' -- 'Že mě odsoudí.' -- '**Ale jak to, žeš z toho měl strach, když se necítíš ničím vinen?**']₁... Věř nebo nevěř, Zosimove, ale takováhle otázka byla položena, a doslova tak, jak to₁ neut říkám, vím to₁ neut bezpečně, mám to₁ neut ze spolehlivého pramene! Tak co říkáš? Co tomu₁ neut říkáš?'

„No, ale ono₁ pers opravdu leccos svědčí proti němu!“ (Ф.М.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2-IV) (“귀걸이는 어디서 왔지?” “길에서 발견했어요.” “왜 다음 날 미트레이랑 회사에 나가지 않았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요.” “어디서 놀았어?” “여기저기서요.” “두쉬킨을 보고 왜 달아났지?” “그 때 너무 놀라서요.” “뭘에 놀랐지?” “우릴 재판정에 넘길 것 같아서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놀라지?” 조시모프, 믿거나 말거나 이 질문은 정확하게 이런 문장이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해. 믿을만한 소식통을 통해 들었거든. 이제 뭐라고 하겠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하겠어?”

“근데, 그건 사실 그에게 불리한 걸 증언하고 있어.”)

사 **това**로 지시되었다가 그 다음 발화에서 이미 관심 상태에 놓인 채로 재등장할 경우 인칭대명사로 공지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위 (18d)에서도 처음에 **това**로 지시된 담화가 그 다음 발화에서 **то**로 내부 조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다음 (27d), (28d), (29d)에서도 드러난다.

- (27) a. **러.** -- [Да что вы так смотрите, точно не узнали?] -- проговорил он вдруг тоже со злобой. -- [Хотите берите, а нет -- я к другим пойду, мне некогда].₁

Он и не думал **это**_{1 prox} сказать, а так, **О**₁ само вдруг выговорилось. (Ф.М.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1-VII) (“뭘 그렇게 빨리 쳐다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는 갑자기 악의를 가득 품고 말했다. “받을 거예요? 아님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전 시간이 없어요.” 그는 그걸 말하려 한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저절로 그런 말이 나와 버렸다.)

- b. **폴.**— [Czemu pani tak patrzy na mnie, jakby mnie pani nie znała?] — odezwał się naraz z wyraźną irytacją. — [Jeżeli pani chce, niech pani weźmie, a jak nie, to pójdę do kogoś innego, bo nie mam czasu.].₁

Nie miał nawet zamiaru mówić **tego**_{1 prox}, ale tak jakoś samo mu się **to**_{1 prox} powiedziało. Stara opamiętała się; zdecydowany ton gościa dodał jej nieco otuchy.

- c. **체.** „[Co se tak díváte, jako byste mě nepoznávala?]“ vyhrkl náhle také nevráživým tónem. „[Řekněte, jestli to vezmete, když ne, půjdu jinam, spěchám.].“₁

Nic **takového**₁ si nepřipravil, přišlo mu **to**_{1 neut} náhle na jazyk samo od sebe. Stařena se vzpamatovala, návštěvníkova rezolutní řeč ji zřejmě uklidnila.

- d. **블.**— [Какво сте ме загледали, сякаш не сте ме познали?] — каза той изведнъж също злобно. — [Ако искате, вземете го, ако не—при друг ще ида, нямам време].₁

Нямаше намерение да й казва **това**_{1 prox}, но **то**_{1 pers} някак само му излезе от устата.

(28) a. **러**. Он как будто улыбнулся, но как будто это была и не улыбка.

– [**A** ведь кто знает, может, и последний раз видимся]₁, – прибавил он нечаянно. Он было подумал **это**_{1 prox} про себя, но как-то **Ø**₁ само проговорилось вслух. (Ф.М.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4-III) (그는 웃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닌 듯 보였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건지 누가 알겠어.” 그는 무심코 덧붙였다. 그는 이걸 혼자 생각하려 했는데, 저절로 밖으로 나와 버렸다.)

b. **폴**. Uśmiechnął się niby, choć właściwie nie był to uśmiech.
— [Zresztą, kto wie, może widzimy się ostatni raz...]₁ — dodał niebacznie.

Pomyślał **to**_{1 prox} i mimo woli wypowiedział **Ø**₁ na głos.

c. **체**. Pokusil se o úsměv, ale nevydařil se mu.

„[**Ostatně, kdo ví, jestli se skutečně nevidíme naposledí**]₁,“ dodal náhle.

Chtěl si **to**_{1 neut} vlastně říct pro sebe, ale jaksi samo mu **to**_{1 neut} splynulo ze rtů.

d. **불**. После сядькаш се засмя, но това не беше и усмивка.

– [**A, кой знае, може и за последен път да се виждаме**]₁
– добави неволно.

Уж само помисли **това**_{1 prox}, но **то**_{1 pers} никак му се изплъзна от устата.

(29) a. **러** – Ведь **это**_{1 prox} не только смешно, **это**_{1 prox} даже уж бесстыдно.

Ну будь я даже виновен (чего я вовсе не говорю), ну с какой стати мне к вам являться с повинною, когда сами вы уж говорите, что я сяду к вам туда *на покой*? (Ф.М.Достоевский.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6-II) (사실 이걸 우스울 뿐 아니라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말하진 않았습시다만) 제 잘못입니다. 당신이 이미 제가 여기 당신 집에서 평화를 얻을 거라고 말하는데, 왜 제가 고해하러 당신 집에 가야 합니까?)

- b. **폴** — Przecież **to_{1 prox}** jest nie tylko śmieszne, ale **O₁** nawet bezwstydnie. Przypuścimy nawet, że jestem winien (czego wcale nie mówię), z jakiej racji mam się zgłaszać do pana i przyznawać, jeżeli sam pan powiada, że tam u pana będę miał spokój!
- c. **체** „Ale **to_{1 neut}** už přestává být směšné, **to_{1 neut}** už je nestydaté! I kdybych byl opravdu vinen (ale **to_{1 nikterak}** nefíkám), z jakého důvodu bych k vám chodil učinit doznání, když mi sám říkáte, že mě posadíte do klidu?“
- d. **불** – Та **това_{1 prox}** вече е не само смешно, **то_{1 pos}** е дори безсрамно. Да речем даже, че съм виновен (което аз съвсем не казвам) – откъде накъде ще идвам да ви признавам, щом вие самият казвате, че аз ще отида там, при вас, на почивка?

러시아어 담화 직시사는 (27a), (28a)에서는 근칭지시사 это와 영형, (29a)에서는 근칭지시사 это의 반복으로 표현되고, 폴란드어 담화 직시사 또한 (28b), (29b)에서는 근칭지시사 to와 영형, (27b)에서는 반복되는 근칭지시사 to로 표현된다. 체코어에서는 (27c), (28c), (29c) 모두에서 반복적인 중립적 지시대명사 to 혹은 takový로 표현된다.

불가리아어 (27d), (28d), (29d)의 담화 직시 양상은 영어와 매우 유사하다. 동일한 문장의 영어 번역인 (27e)에서는 주어진 직접 인용을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인칭대명사로 먼저 지시하지만, (26e)와 (28e)에서는 두 담화 직시사가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의 순서로 나타난다. 즉, 세 경우 모두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처럼 지시대명사가 반복되지는 않는다.

- (27e) He had not even thought of saying **this_{1 prox}**, but **it_{1 pers}** was suddenly said of itself.
- (28e) **It_{1 pers}** was what he was thinking, and **it_{1 pers}** somehow was uttered aloud.
- (29e) **That_{1 prox}** 's not simply ridiculous, **it_{1 pers}** 's possibly shameless.

명사, 형용사의 격범주를 상실한 불가리아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분석어

이다. 종합적 방법이 아닌 분석적 방법으로 특정 단어의 문법 의미를 표현하는 분석어에서는 단어 자체의 문법적 자질이 아니라, 문장 혹은 발화 및 텍스트 안에서 비로소 형성되는 술어 및 다른 단어와의 관계가 중시되는데, 이것은 담화 직시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담화 직시에서는 그 단위가 단어에서 발화로 좀 더 커졌을 뿐, 이러한 다른 성분, 즉 다른 발화와의 관계를 그 발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혹은 화자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시한다. 즉, 다른 슬라브어에 비해 불가리아어 담화 직시에서 인칭대명사의 사용이 활발한 것은, 지시대명사의 본래 기능이 대상과 화자의 직접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인 반면, 인칭대명사는 문장성분 사이의 관계, 혹은 발화 상의 정보적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가리아어가 분석어인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가리아어 담화 직시에서 단형 사격 인칭대명사 ro의 화제로서의 빈번한 사용 또한 불가리아어가 분석어인 것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다. 형태적 격이 존재하는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에서 특정 격의 지시대명사가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 변화를 통해 화제화될 수 있는 것과 달리, 무엇보다 문장성분들 사이의 통사적 관계를 드러내는 불가리아어 어순이 뒤바뀌면서 특정 성분이 화제화될 경우, 유일하게 격변화하는 인칭대명사가 어순을 대신하여 통사적 관계를 드러내주는 결정적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슬라브어 담화 직시사의 사용은 주어진 언어의 분석어적, 종합어(synthetic language)적 성격을 드러내며 이것은 불가리아어 이외에 다른 슬라브어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분석적인 슬라브어인 불가리아어에서는 대표적 분석어인 영어와 비슷한 유형의 담화 직시 경향을 보이는 반면, 보다 종합어적 성격이 강한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에서는 텍스트 전체의 통사적 구성과 무관하게 담화 직시 기능의 지시대명사가 계속 반복된다.

이 때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사이의 차이점도 감지된다. 보다 종합어적 성격이 강한 폴란드어와 러시아어에서는 관심 상태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는 담화 직시사가 주격과 사격 모두에서 보다 자주 생략된다. 아직 분석어화(analyticization)가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구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분석어화가 진행되고 있는 체코어의 경우 담화 직시 경향은 영어나 불가

리아어와 유사하지 않지만, 그것이 주격이든 사격이든 상관없이 담화 직시사가 생략되기보단 계속해서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강하다.

체코어, 폴란드어, 불가리아어는 pro-탈락 언어로서 동사와 동일한 문법 정보를 공유한 채, 특별한 어휘 의미를 갖지 않는 주격 인칭대명사의 경우 공통적으로 그것의 부재가 무표적이지만, 사격 인칭대명사의 생략에서는 차이를 드러낸다. 즉, 가장 분석적인 불가리아어에서는 사격 인칭대명사가 거의 생략되지 않지만 세 언어 중 가장 종합어적 성격이 강한 폴란드어에서는 사격 인칭대명사의 생략이 가장 잦은데(정정원 2015a), 담화 직시사의 생략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된다. 체코어 담화 직시사의 생략 빈도가 폴란드어보다 낮은 것 또한 체코어가 폴란드어보다 좀 더 분석어화된 언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현대 체코어의 원근 중립 담화 직시사 to는 직시성을 잃고 공지시 역할만 하므로, 그 의미에 있어서 인칭대명사 ono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체코어에서는 주로 지시대명사 to가 담화 직시사로 사용되면서, 주로 명사나 명사구를 공지시하는 인칭대명사와 기능적으로 분화된다. 이에, 반복되는, 주어집성이 강한 담화를 지시하지 못하는 인칭대명사를 원근 중립적 지시대명사 to가 대신한다. 즉, 체코어의 분석어적 특징이 영형대명사의 출현은 제한하지만, 인칭대명사와 원근 중립적 지시대명사의 역할분담에 따라 담화 직시사 사이의 내부 조응적 관계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IV. 결론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불가리아어에서 담화 직시는 무엇보다도 러시아어,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3인칭 단수 근칭 지시대명사 это, to, това 및 체코어 원근 중립적 지시대명사 to에 의해 표현된다. 이 중 현대 체코어 원근 중립적 지시사 to 또한 역사적으로는 폴란드어 to와 마찬가지로 근접한 것을 가리켰었다. 마케도니아어, 세르비아어/크로아티아어를 제외한 다른 슬라브어에서도 근칭지시사가 담화 직시사로 기능한다. 이러한 슬라브어 근칭지시

사의 담화 직시사로의 기능 전이는 한국어, 영어 등 많은 언어에서 무엇보다도 원칭 및 비(非)근칭지시사가 대응사와 담화 직시사로 전이되는 경향(Hanks 1992:64)에 상충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인지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이것이 반영되는 인간의 언어 또한 매우 자기중심적(egocentric),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 혹은 다수가 되는 인간중심, 즉 남성중심적(androcentric)인 경향을 띠게 된다. 이러한 인간 언어의 경향은 원근 지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것이 먼 것보다 높은 현저성을 가지기 마련이다(Hanks 1992:64). 다시 말해, 자기중심적 인간의 사고와 언어에서 근칭과 원칭의 대립은 타자의 “is-tunc-illie”를 기본축으로 한 ‘저것’과 ‘저것 아닌 것’의 대립이 아니라, 자아의 “ego-nunc-hic”를 기본축으로 한 ‘이것’과 ‘이것 아닌 것’, 즉 ‘나 - 나 아닌 것’, ‘현재 - 현재 아닌 것’, ‘여기 - 여기 아닌 것’의 대립이 된다. 따라서 ‘가까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대립에서 보다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근칭’은 의미적으로 유표적이고 덜 중립적인 것이 되는 반면, ‘비(非)근칭’ 혹은 ‘원칭’은 무표적이고, 보다 중립적인 것이 되어, 직시적 원근 의미가 중화된 대응사와 담화 직시사로 비(非)근칭 혹은 원칭지시사가 주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이런 의미에서 슬라브어에서 유독 근칭지시사가 대응사와 담화 직시사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연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현상을 그대로 기술하는 단계에 머무르거나, 더 나아가 그 이면의 원인을 모색하는 두 가지 학술적 태도를 취할 수 있겠는데, 후자는 적어도 두 가지 가설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 하나는 공시적 관점에서 발견되는 슬라브어 근칭지시사의 무표성 및 높은 사용 빈도와 넓은 사용역이 슬라브인의 특수한 원근 개념, 더 나아가서는 슬라브인의 독특한 사고방식 혹은 세계관에 근거한다는 가설이다. 하지만 슬라브인만의 특수한 원근 개념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줄 근거가 충분치 않다.

따라서 시야를 좀 더 확장하여 의미 측면에서뿐 아니라 형태 측면에서 슬라

브어 지시사를 공식적으로 비교함과 동시에, 통시적 관점에서 슬라브어 지시대명사들을 통찰하며 또 다른 가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현대 동슬라브어에서는 보다 사용이 우세하고 보편적인 근칭지시사 이외에 t-어간의 비파생 ‘원칭’ 혹은 ‘비(非)근칭’ 지시사의 원근 중립적 사용이 두드러지고, 특히 러시아어에서는 형태적으로 무표적이지만 기능적으로 유표적인 원칭지시사 to가 담화 직시사로 사용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한편, 모든 남슬라브어에서는 근칭, 원칭에 상관없이 t-어간의 비파생 지시사가 담화 직시 역할을 수행한다. 고대슬라브어에서 t-어간의 지시사 ть가 화자에게 멀지만, 청자에게 가까운 원칭을 가리켰음을 상기하면, 이와 같이 모든 현대슬라브어에서 t-어간의 비파생 지시사가 담화 직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고대슬라브어 원칭지시사 ть와 통시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만약 고대 슬라브어가 여러 언어로 분화되기 이전에 이미 원칭지시사 ть가 대응 및 담화 직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서로 다르게 분화되고 발전된 현대슬라브어에서 t-어간 비파생 지시사가 근원칭에 상관없이 모두 원근 중립적 지시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연구에서 통시적, 공식적 관점의 보다 심도 있는 비교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이러한 추론만으로도 슬라브어 담화 직시사의 전반적 특징이 언어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경향과 상충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개별 슬라브어 담화 직시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러시아어,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체코어에서는 담화 직시에 근칭 및 근칭에서 발전한 원근 중립적 지시사가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것들의 사용범위는 언어에 따라 상이하다. tamto라는 형태적으로 유표적이고(tam+to), 그 사용영역도 거의 외부조응적 직시에 제한된 원칭지시사를 가진 폴란드어, 체코어에서는 원칭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가 담화 직시사로 거의 기능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형태적으로 무표적인 러시아어 원칭지시대명사 to와 인칭대명사 oho는 담화 직시에서 보다 자주 발견된다. 한편, 불가리아어에서는 폴란드어, 체코어와 마찬가지로 원칭지시대명사 oho가 담화 직시사로 사용된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인칭대명사 to는 영어 it처럼 비교적 활발하게 담화 직시 기능을 수행한다.

러시아어,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담화 직시에서 기능적으로 보다 유표적인 원칭지시사의 경우 외부조응적 직시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자와 주어진 담화의 원거리성을 드러낸다. 러시아어 원칭지시사는 비교적 자주 사용되며, 따라서 보다 자주 사용되는 근칭 담화지시사와 마찬가지로 직시성이 많이 약화되어, 원거리성은 근칭 담화 직시사와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암시되는 편이다. 한편, 담화 직시사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체코어의 원칭지시대명사는 한번 사용되면 원거리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적극적으로 강조하게 된다.

무표적 지시대명사, 즉 러시아어 это, 폴란드어 to, 체코어 to, 불가리아어 това는 높은 사용빈도와 넓은 사용역으로 인해, 본연의 근거리 의미가 대체로 약화되거나 중화되었지만, 러시아어 это는 담화 직시사로 기능할 때에도 주어진 담화에 대한 화자의 근접성을 어느 정도 암시한다. 폴란드어, 체코어, 불가리아어와 달리 러시아어에서는 원칭, 근칭 지시대명사가 모두 담화 직시사가 되기 때문에, 두 담화 직시사가 어느 정도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이에 두 지시사의 가장 본원적 차이인 원근 의미가 담화 직시에서도 반영되어, 화자가 주어진 담화에 대해 갖는 시간적, 심리적, 감정적, 인지적 근거리감, 원거리감을 암시한다. 이에 따라 담화 직시사로 기능하는 러시아어 인칭대명사 оно 또한 주어진 담화에 대한 화자의 상대적 원거리감을 암시한다(정정원 2016). 즉, это와 то가 주어진 담화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근거리감 및 그것의 부재를 암시한다면, оно는 это가 가지고 있는 화자의 근거리감의 부재를 통해 주어진 담화를 객관화한다.

한편, 인칭대명사는 체코어와 폴란드어에서 담화 직시사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러시아어 인칭대명사는 담화 직시사로 사용되지만 의미-화용적 변별성을 갖는 반면, 불가리아어 담화 직시 인칭대명사는 텍스트 내에서 특별한 통사-화용적 역할을 담당하여, 지시된 담화정보의 높은 주어집성을 드러내고, 선행 담화와의 내부조응적 연계를 공고히 하는데, 이것은 불가리아어가 분석어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슬라브어 담화 직시사는 개별 언어에서 상이하게 직시와 대응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중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불가리아어를 비교했

을 때, 근칭, 원칭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가 모두 담화 직시사로 기능하는 러시아어에서는 그것의 직시성이 다른 언어에 비해 두드러지며, 가장 분석적인 슬라브어인 불가리아어에서는 다른 슬라브어에 비해 인칭대명사의 사용이 활발하여 담화 직시사의 대응적 기능이 좀 더 두드러진다.

❖ 참고 문헌

1. 분석텍스트

- CZECHOW, Antoni, *Nieczekawa historia* (Przekład i komentarz René Śliwowski), Warszawa: Sic, 2011.
- DOSTOJEVSKIJ, Fjodor Michajlovič, *Zločin a trest*, Překlad: J Klaučo, Z Jesenská, 1966. (<http://xbook.cz/sites/default/files/knihovna/2009/10/zlocinatrest.pdf>)
- DOSTOEWSKI, Fiodor, *Zbrodnia i kara : powieść w sześciu częściach z epilogiem*, Jastrzębiec-Kozłowski, Czesław [Przedm.]; Jerzy [Tł.], Warszawa: Państwowy Instytut Wydawniczy, 1984.
- DOSTOJEWSKI, Fiodor *Zbrodnia i kara : powieść w sześciu częściach z epilogiem*, Kułakowska, Danuta [Przedm.]; Pański, Jerzy [Tł.], Warszawa: Sara, 2002.
- DOSTOEVSKY, Fyodor, *Crime and Punishment*, translated by Constance Garnett. New York: The Modern Library. 1914/1994.
- ДОСТОЕВСКИ, Фьодор,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Превод: Георги Константинов. Издателство „Захарий Стоянов“. 2005.
- ДОСТОЕВСКИЙ, Ф.М.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Петербург, 1866 (http://az.lib.ru/d/dostoewskij_f_m/text_0060.shtml)
- ПЕТРОВА, Стефка, Правда Цанкова, Елица Куртева, Кристина Томова, Иван Илиев, *Учете български език. ниво 2Б*. София: Д-р Иван Богоров, 2009.
- ЧЕХОВ, А.П., “Скучная история”,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2 томах. Том шестой*. М.: Худлитиздат, 1955.

ЧЕХОВ, А. П., "Скучна история", *Дамата с кученцето. Повести и разкази*,
София: книгоиздателска къща «труд», 2004.

2. 학술 자료

김명자, 「지시대명사 연구」, 『슬라브어연구』 제5권, 2000.

김원희, 「고대 교회 슬라브어 지시대명사 Тъ 의 문법화 연구 : 고대 교회 슬라브어, 불가리아어, 러시아어, 체코어의 용례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33, 2004.

_____, 「지시-한정성의 강도와 문법 기제의 통시적 변화 - 러시아어와 불가리아어 “부활” 텍스트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슬라브어 연구』 제17권 2호, 2012.

정정원, 「슬라브어 영형태(null-form)에 대한 소고: 무주어문, 탈락 그리고 화용론적 생략에 대하여」, 『슬라브어 연구』 제17권 2호, 2012.

_____, 「슬라브어의 생략과 화제, 테마, 주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불가리아어 문어텍스트 분석-」,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42집, 2013.

_____, 「러시아어와 폴란드어 문학텍스트 내 생략의 화용적 분석- 므로제크의 “남쪽으로의 도주”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33집, 2013.

_____, 「슬라브어 보어의 공지시적 생략 -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불가리아어를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39(1), 2015.

_____, 「러시아어 원칭지시대명사 тот의 대응과 직시- 폴란드어, 체코어, 불가리아어 대응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슬라브어연구』 제20권 2호, 2015.

_____, 「러시아어 담화 직시」, 『러시아학』 제13호, 2016.

홍택규, 「대응과 지각적 직시」, 『슬라브연구』 제30권 3호, 2014.

BÜHLER, Karl, "The deictic field of language and deictic words". (R. Jarvella, W. Klein, ed.) *Speech, Place, and Action*, Wiley, New York, 1982.

DIESSEL, Holger, *Demonstratives. Form, function, and grammaticaliz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9.

DIMITROVA, Ludmila & Radovan GARABÍK, "Translation equivalence of demonstrative pronouns in Bulgarian-Slovak parallel texts", *Cognitive Studies* 14 Warsaw: SOW publishing house, 2014. (http://korpus.juls.savba.sk/attachments/publications/2014-dimitrova_garabik_pronouns.pdf)

ENLICH, Konrad, "Anaphora and deixis:same, similar, or different?", *Speech, Place, and Action*, Wiley, New York, 1982.

- FILLMORE, Charles, "Towards a descriptive framework for spatial deixis", (R. Jarvella & W. Klein eds.) *Speech, Place, and Action*, Wiley, New York, 1982.
- CHAFE, Wallace L.,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Charles N. Li eds.), *Subject and topic*, NY, San Francisco, London: Academic Press Inc., 1976.
- GUNDEL, Jeanette K., Nancy HEDBERG, and Ron ZACHARSKI,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69(2) June, 1993.
- HANKS, William F., "The indexical ground of deictic reference", (Duranti, A., & Goodwin, C. eds.) *Rethinking Context: Language as an Interactive Phenomen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HAUENSCHILD, Christa, "Demonstrative pronouns in Russian and Czech - deixis and anaphora." (Weissenborn, Jürgen & Wolfgang Klein eds.) *Here and There: Cross-linguistic Studies on Deixis and Demonstra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2.
- HERRITY, Peter, *Slovene: A Comprehensive Grammar* (Comprehensive Grammars), Routledge, 2000.
- HIMMELMANN, Nikolaus P., "Demonstratives in narrative Discourse: A Taxonomy of Universal Uses.", (Barbara Fox eds.) *Studies in Anaphora*, Amsterdam, 1996, 205 – 254.
- KIBRIK, Andrej A., "Anaphora in Russian narrative discourse: A cognitive calculative account", (B. Fox eds.) *Studies in anaphora*. Amsterdam: Benjamins, 1996.
- KRESIN, Susan C., "Deixis and thematic hierarchies in Russian narrative discourse", *Journal of pragmatics* 30/4, 1998.
- KRESIN, Susan C., "Demonstratives, Definite Articles and Clines of Grammaticalization: Evidence from Russian and Spoken Czech," (L. A. Janda, R. Feldstein & S. Franks eds) *Where One's Tongue Rules Well, A Festschrift for Charles E. Townsend*, Indiana Slavic Studies, Vol. 13, 2002.
- LAKOFF, Robin, "Remarks on This and That", *Papers from the tenth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74.

- LEVINSON, Stephen C.,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LYONS, John,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NUNBERG, Geoffrey, "Indexicality and Deixi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1993.
- RECANTI, François, "Deixis and anaphora", (Zoltan Szabo eds) *Semantics vs.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STIEBER, Zdzisław, *Zarys gramatyki porównawczej języków słowiańskich*. Warszawa: Wydawnictwo Naukowe PWN, 1979/2005.
- Slovník spisovného jazyka českého*, 2011 (<http://ssjc.ujc.cas.cz/>)
- VAN SCHONEVELD, C. H., "The semantics and syntax of Russian pronominal structure: a feature breakdown", *Proceeding COLING '88 Proceedings of the 12th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 Volume 2*, 1988.
- VAN SCHOONEVELD, C. H., "Praguean Structure and Autopoiesis: Deixis as Individuation". (L. Waugh and S. Rudy eds) *New Vistas in Grammar: Invariance and Variation*, 1991.
- Vokabulář webový. Webové hnízdo pramenů k poznání historické češtiny*, 2006-2016 (<http://vokabular.ujc.cas.cz/>).
- WEBBER, Bonnie Lynn, "Discourse Deixis: Reference to Discourse Segments",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Buffalo, NY, 1988.
- WEBBER, Bonnie Lynn, "Structure and Ostension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Deixis",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vol. 6, 1991.
- ЗОЛОТОВА, Г.А., Н.К. ОНИПЕНКО, М.Ю. СИДОРОВА,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грамматик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1998.
- МЕЙЕ, А., *Общеславянский язык*,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51.
- РЕВЗИН, И.И., "Некоторые средства выражения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я по 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Проблемы грамматического моделирования*, М.: Наука, 1973.

❖ ABSTRACT

Discourse Deixis and Anaphora in Slavic Languages

Chung, Jung Won

This paper deals with Slavic discourse deixis comparing Russian, Polish, Czech and Bulgarian demonstrative and personal pronouns. In general, the Slavic proximal pronouns have precedence over the distal ones. Proximal pronouns, such as Russian *eto*, Polish *to*, and Bulgarian *tova*, are employed more frequently and widely than their distal counterparts *to*, *tamto* and *onova*. The distance-neutral pronoun *to* in Modern Czech was also a proximal pronoun in the past. These Slavic proximal and former-proximal pronouns function as a discourse deixis marker, whereas, in most other languages, the discourse deixis is mainly a function of distal or non-proximal demonstrative pronouns.

However, the Russian, Polish, Czech, and Bulgarian discourse deixis differs in distal demonstrative and personal pronouns. In general, the Polish and Czech discourse deixis does not employ the distal demonstrative pronoun *tamto* or the personal pronoun *ono*. The Russian distal demonstrative pronoun *to* is actively used as a discourse deixis marker, and the personal pronoun *ono* can also be used to refer to the preceding discourse, though it is not frequent. In Bulgarian the distal demonstrative pronoun *onova* is rarely used to refer to a discourse, but the personal pronoun *to* frequently indicates a discourse that is repeatedly referred to in a text.

The discourse deixis, which is a peripheral deixis and can be both deixis and anaphora, reveals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different Slavic languages. In Russian, where all of the proximal, distal, and personal pronouns function as a discourse deixis marker, the deixis itself plays a crucial role in distinguishing these three pronouns from each other, revealing the speaker's psychological, emotional, temporal, and cognitive proximity to or distance from a given discourse. In Bulgarian, the most analytic Slavic language, the personal pronoun is used more as a discourse deixis marker to reveal the highest givenness of a discourse, and it seems that Bulgarian discourse deixis is more anaphoric than the other Slavic discourse deixis is.

Key Words

Slavic, Russian, Polish, Czech, Bulgarian, discourse deixis, deixis, anaphora

논문접수일: 2016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01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05일